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 교육팽창 이후 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한결

국문초록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 교육팽창 이후 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 한 결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일정 교육단계 수준에서의 참여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교육팽창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편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 간 선별적으로 나타났던 교육성취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원인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교육연수와 같은 양적 교육성취 중심에서 대학서열과 같은 질적 교육성취의 차이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팽창의 정점에 있는 한국에서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고3이었던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계층이 2013년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조사대상자들인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동안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성취가 매개하는 바를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성취는 기존의 교육격차를 대표하였던 양적 교육성취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질적 교육성취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양적 교육성취와 질적 교육성취가 각각 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양적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를, 질적 교육성취는 대학계열과 대학서열로 구분하였고,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6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직업은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계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서열의 경우 전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소득은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와 질적 교육성취 중 하나인 대학계열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서열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직업이동에는 교육의 양적인 차이가 중요하지만 세대 간 소득이동에는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 격차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을 통합한 교육변수를 사용하여 세대 간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을 확인한 추가 분석의 결과, 세대 간 소득이동의 경우 최상위 서열의 대학 졸업자 집단이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이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분석의 결과를 강

건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육팽창이 계속되어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한다 하여도 부모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없앨 수 있으나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Lucas(2001)의 EMI 가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부모 세대의 불평등은 어떠한 교육의 형태로든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Thurow(1972)가 일자리 경쟁이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가 필수가 되며 지위집단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Collins(1979)의 지위경쟁이론에서 지위집단 간 경제적·문화적 투자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통합 및 사회 전체의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통해 자녀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분야에서는 공보육과 공교육의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 최저임금의 인상, 재분배 구조의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세대 간 사회이동, 교육팽창, 직업이동, 소득이동, 양적 교육성취(교육연수), 질적 교육성취(대학계열·대학서열), 매개효과분석

학 번 : 2013-2011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제1절 사회이동과 교육	10
제2절 계층의 정의	13
제3절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15
1.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교육팽창의 발생 ..	15
2.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교육팽창으로 인한 교육의 특성 변화	19
3. 한국에서의 교육팽창과 교육의 특성 변화	22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8
1.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양적 교육성취의 영향 ·	28
2.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 ·	33
1) 가족배경이 질적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33
2) 질적 교육성취가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	36
3)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	39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45
제1절 연구가설	45
제2절 연구모형	47
제4장 연구방법	48
제1절 연구자료 및 대상	48
1. 연구자료	48
2. 연구대상	49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52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52
1) 종속변수	53
2) 독립변수	53
2. 매개변수	54
1) 양적 교육성취	54
2) 질적 교육성취	55
3. 통제변수	57
제3절 분석방법	58

제5장 연구결과 60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63
제3절 표본손실의 영향	67
제4절 가설검증	71
1.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71
1) 직업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71
2) 소득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75
2.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78
1) 직업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78
2) 소득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82
3.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85
1) 직업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85
2) 소득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88
4.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양적·질적 효과 검증	92

제6장 결론 96

제1절 결론 및 함의	96
1. 결론	96
2. 함의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4

참고문헌	107
부 록	120

표 목차

<표 1> 통제변수의 구성	57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표 3> 분석단계별 교육성취변수	63
<표 4> 분석단계별 직업위세점수(SIOPS-08)	64
<표 5> 분석단계별 로그 월평균 소득	65
<표 6> 분석단계별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66
<표 7>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특성비교	70
<표 8> 1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	74
<표 9> 1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	77
<표 10> 2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계열이 미치는 영향..	81
<표 11> 2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대학계열이 미치는 영향..	84
<표 12> 3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서열이 미치는 영향..	87
<표 13> 3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대학서열이 미치는 영향..	91
<표 14>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양적·질적 영향 ...	95

그림 목차

<그림 1> 산업사회국가 고등교육팽창	23
<그림 2> 한국의 세대별 교육수준	23
<그림 3> 연구모형	4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산 정약용의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거천용출호(渠川龍出乎)’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계층 상승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18세기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왔다면, 신분제가 폐지되고 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은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이 속담을 인용한 사례들을 더러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속담을 인용한 많은 기사들은 오히려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이종규, 2006; 유종일, 2012; 원선우, 2013; 고란, 2015). 따라서 신분제 폐지, 높아진 교육수준, 자유주의, 능력중심의 자본주의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천에는 정말 용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시발점으로 이를 세대 간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세대 간 사회이동이란 한 세대에서 위치했던 사회계층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 다른 사회계층으로 수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orokin, 1927). 즉, 앞선 세대의 지위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서 획득하게 되는 요인들에 의해 상승 혹은 하강된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세대 간 사회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이동 연구의 중요성은 구조적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정당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사회계층을 대물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지위 분배의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업적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부모계층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계층이 유지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능력에 의거한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어긋난다(Giddens, 2011).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은 자원 분배와 기회획득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출신배경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재능과 선택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래, 2004). 또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도 경쟁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능력에 따른 업적을 지위 분배와 그에 따르는 불평등의 근거로 삼으며, 결국 경쟁에서 능력을 갖춘 개인이 더 높은 사회적 성취를 얻는다고 가정한다(이건만, 2009).

따라서 현대사회의 관점에서는 이전 세대인 부모세대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업적에 대해 그에 맞는 사회계층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정당한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여기서 발생한 구조적 불평등은 자녀세대가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계층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한 사회계층에 위치 지워질 때, 본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영향이 여기에 미친다면 부모세대에 발생한 불평등은 자식세대의 계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이 고착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는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불평등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 시절부터 능력을 개발하고 업적을 쌓는데 있어 부모의 양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면서 분리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다. 결국 부모는 인간 성장의 바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능력 발현과 그에 따른 업적에도 흘러들어가 자녀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계층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개인 스스로가 만드는 노력, 능력, 업적이 가장 명확하게 작용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결정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발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자녀의 능력 혹은 업적을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계층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능력 혹은 업적으로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인의 사회계층 혹은 사회계급, 사회경제적 지위형성에 있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개방사회의 이념에 있어 기존 혈연·혈통의 대체수단으로 가장 좋은 수단이며(정우현, 1983), 산업사회가 진행되며 나타나는 전문화·관료화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증서(educational certificate)를 만드는 방법이고(Weber, 1946), 산업사회 노동시장에서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남춘호, 2003), 능력에 바탕을 둔 업적주의, 감정중립성, 객관적 평가, 보편주의 등의 요소로 대중에게 강한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송경원, 2001). 따라서 세대 간 사회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특히 교육을 부모와 자녀 간 발생하는 지위형성 과정 분석에 있어 중요 매개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Blau & Duncan, 1967; 신광영, 1995; 황덕순, 2000; 방하남·김기현, 2001). 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데 직업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근거로 할 때(Parkin, 1971),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이 신호로써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선발기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재생산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채영, 1992).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lau &

Duncan(1967)의 지위획득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을 양적인 수준으로써의 학력으로 정의하였고, 실제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학력의 매개 역할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중 조은(2000)은 3대에 걸친 가족사를 질적 분석 함으로써, 방하남·김기현(2001)은 조사 자료를 통한 양적분석을 함으로써, 그리고 김영화(1997)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에서도 학력이 부모계층과 자녀계층 사이에 계층 간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력이 계층 이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학력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획득한 학력에 맞게 직업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계층 이동이 불평등하게 일어나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팽창이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면서 교육현황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한국 또한 같은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세대별 교육현황을 볼 때 몇 십년 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시행되었던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정도별 인구통계 따르면¹⁾ 60대의 경우 초등학교까지 진학한 비율(33.4%)이 가장 큰 반면, 50대와 40대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비율(40.7% > 48.0%)이 절반 가까이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30대부터는 대학진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비율(62.8%)이 절반을 넘기고, 20대에 들어와서는 대학진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압도적인 비율(81.4%)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거의 10년 단위로 학력이 한 단계씩 상승하였고 현재는 대학교육까지 거의 보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한국교육개발원의 진학을 자료는 전체 졸업자 중 진학을 한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교육수준별 인구비율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비율은 각 교육수준별 재학 이상인 자들의 비율이며, 중퇴자는 한 단계 아래의 교육수준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교육팽창의 발생은 기존에 있던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부모세대의 계층적 불평등과 교육에 관한 구조적 관련성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보편적으로 학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부모세대의 계층적 불평등이 영향을 미쳐 만들어냈던 선별적 학력성취가 보편화된 학력성취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학력성취에 미치는 부모세대의 영향이 줄어들고 보편적으로 성취된 학력에 맞추어 자녀세대의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대 간 계층이동의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한다. 특히 대졸자 수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대학 학력 소지자의 임금 프리미엄을 낮추게 하여 임금불평등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오히려 임금불평등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교육확대가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즉,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불평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Raftery & Hout(1993)는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이하 MMI) 가설을 제시하며, 기회가 완전히 평등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평등이 유지될 것이라 주장하여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가 계속적으로 자녀의 학력이라는 양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Lucas(2001)는 MMI 가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의 교육수준 혹은 교육연수처럼 교육을 양적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이제는 부모의 계층이 교육의 계열과 같은 질적인 차이에도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는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이하 EMI) 가설을 제시하여 계층 간 불평등은 교육의 양적·질적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기존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에 변화된 양상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현상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팽창의 정점에 서 있는 한국에서의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계층적 지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학력만을

핵심적인 교육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서도 주로 양적인 교육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서 교육변수를 양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질적인 차원까지도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반적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학력에 미치는 부모계층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영향이 성적과 같은 질적 차원으로 변질되어 불평등한 재생산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김영화·김병관, 1999)과 함께 연령별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추세가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즉, 최근 세대로 올수록 부모의 계층이 자녀 학력성취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지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육의 양적인 차이도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차원 또한 같이 고려해봐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방하남·김기현, 2003; 여유진, 2008).

하지만 아직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서 양적·질적 차이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분석자료의 한계에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조사기간과 대상자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역할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업적을 쌓아가는 과정과 이로 인해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 위치 지워지는 과정이 조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육 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시기별 역할에 맞게 조사된 자료는 부재하며, 학생시절부터 조사된 자료 또한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한계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측면에 있어서 교육을 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수의 부족이다. 현재 교육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한 자료들 중 청년패널이나 노동패널,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유형 정도만 고려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

육의 질적 차원을 고려한 현재까지의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학교수준(한대동, 1997; 이해영·박인중·성기선·한만길, 1998)이나 대학유형(이해영, 2006), 수능급간(김수혜·김경근, 2010; 이자형·이기혜, 2011)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면밀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를 찾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변화된 교육팽창 현황을 잘 대표하고 교육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며 학생시절부터 성인까지의 역할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제거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특성을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양적 차원의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의 분석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개천에는 용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하여,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교육팽창으로 인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 중요 변수인 교육의 성격이 변하였음을 상정하고 기존에 고려되었던 양적인 차원의 교육변수와 질적인 차원의 교육변수를 모두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서 교육을 매개요인으로 고려하였던 것을 그대로 차용하되 교육변수의 특성을 양적·질적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급격한 교육팽창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새로운 고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도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현대사회의 계층 형성 과정에 관한 후속연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서 교육이 매개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급격한 교육팽창으로 인하여 학력성취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중요 매개변수인 교육의 특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논의를 근거로 하여 교육변수를 기존의 양적 차원으로만 고려했던 다수의 연구들과는 달리 질적 차원까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을 통한 세대 간 불평등 양상을 새로이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계층과 자녀세대의 계층 사이의 매개변수를 교육의 양적 차원을 대표하는 변수와 질적 차원을 대표하는 변수로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 계층은 직업위세와 소득으로, 양적 차원의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로, 질적 차원의 교육성취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누어진 대학계열과 대학 학과별 수능점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대학서열에서 개인이 위치한 서열로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교육의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차용했던 방식으로 교육팽창 발생 이후에도 교육의 양적인 측면이 여전히 세대 간 불평등을 매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흐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교육의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의 연구문제와는 다르게 교육팽창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확대된 일정 교육수준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상황과 연구대상을 고려하여 분석의 기준이 되는 교육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이 속하는 20대 집단의 77.9%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내에서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라는 질적인 분화가 있음과 동시에 일반대학 내에서도 서열에 따른 질적인 분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더 나아가 일반대학 내에서의 질적인 차이 또한 분석의 중심에 놓아 면밀하게 질적인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사회이동의 모습을 분석할 것이다.²⁾ 특히 일반대학 내에서의 질적 차이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학과별 수능점수를 토대로 한국의 대학들을 서열화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질적인 교육 성취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의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시험 성적으로 서열화되어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정진상, 2010). 또한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보다는 학생부나 면접 등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시험 점수를 토대로 한 대학서열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Sorokin(1927)에 따르면 사회이동이란 개인이 한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 유형은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으로, 수평적 이동은 동일한 계층에서 일어나는 이동이며, 수직적 이동은 계층 간 이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다. 세대 내 이동은 한 세대 내에서 개인이 이뤄내는 이동을 의미하며,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에서의 사회적 위치가 그 다음 세대를 거쳐 수직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사회이동은 서로 독립적인 두 세대 간의 이동을 보여줌으로써 한 사회의 개방성 정도를 보여 준다. 만약 개방적이지 못한 사회의 경우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사람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사장되어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며, 이와 같이 사회이동성이 낮은 것은 형평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김희삼, 2015).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이동 개방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효율과 이익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사회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계층이 어떻게 위치 지워지고 어떻게 세대 간 이동으로 이행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있어 사회계층의 위치가 결정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귀속적 요인으로써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으로 신체, 성별, 지능, 부모의 계층 배경 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업적적 요인으로써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교육, 기술, 자격증 등을 들 수 있다(홍두승·구해근, 2001). 이 두 요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계층 위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마 인류역사에 계층이 발생하면서 부터 계층화에 작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개인이 한 계층에 이르는 과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의 개인의 계층은 대부분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의 계층으로써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에 따라 적합한 생활양식이 정해져있는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계층을 그대로 물려받아 같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개인의 계층적 위치를 정하는 기제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인 자유주의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위치 지워지는 계층의 경우 인간 의지와 무관하며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 아닌 것으로 부정되었다. 반면, 업적적 요인에 의해 위치 지워지는 계층은 인간의 특성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여겼다(전제아, 2001). 개인이 타고난 배경보다는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업적을 중요시하였고, 이러한 이념은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에서도 개인의 계층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계층을 가장 중요시하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요인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개인이 위치할 수 있는 계층 획득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이 대두되었다. 교육의 경우 일반 민주주의의 확장과 함께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교육기회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인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로 강조되어왔으며(신광영, 2001), 산업사회가 시작되며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김희삼, 2015).

여기서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중요 기능 중 선발 기능과 관련이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이 한 사회계층에 위치 지워지는데 있어 그 계층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에 따라 계층의 위치를 할당하는 기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이 바로 선발이며 교육은 바로 이 기능을 담당한다(김천기, 2013).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교육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질과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에 맞추어진 사회계층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교육성취 수준이 일종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로써 작용하고 기업은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선발 기능을 명확히 보여 준다(Stiglitz, 1975). 이에 한중희(2004)는 한국의 대표적 불평등요인 중 하나인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학력은 개인이 진입할 수 있는 산업과 직업을 제한하고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며, 학벌 또한 고용상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김영철·김희삼(2012)의 연구도 차별 경험의 조사를 통해 학벌이 취업과 승진, 임금격차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어 교육의 선발 기능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았듯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귀속적 요인과 업적적 요인이 각각 영향을 미치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업적적 요인에 따른 계층이동이 중요시된다. 사회이동의 불평등, 즉 낮은 개방성은 사회통합 및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이동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대표하고 이에 따른 선발을 이끌어내어 부모계층과 자녀계층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 중요 매개요인으로써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를 위하여 부모계층과 자녀의 교육, 자녀의 계층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제2절 계층의 정의

계층은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가 위치한 계층을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계층이란 계급과는 달리 성원의 귀속 의식과는 상관없이 객관적 속성을 공유하는 객관적인 사회범주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구조적인 사회 불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분업과 그에 따른 사회분화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에 의해 개인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서열화된 구조 속에 비슷한 이해를 가진 집단을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계층이라는 개념 속에는 계층 간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기본 단위로 직업, 교육, 소득 등 각 계층 변수의 측면에서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위의 고저에 의해 분류되며(한상진, 1984), 계층은 질적인 것이 아니며 동일한 범주들에서의 다과 혹은 고저에 의해 나뉘게 되고, 결국 서로 연속적인 것으로 표현되며 위계 또한 연속적이게 된다(김채운, 1995).

이러한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 중 직업은 계층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변수이다(차종천, 1998; 김영화, 1999; 장상수, 2004; 유홍준·김월화, 2006; Giddens, 2011). 특히,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상대적 위세는 복합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에서 노동의 분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노동 분화의 내재된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노동의 분화는 다양한 직업적 역할과 연관된 권력에 대해 내재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특권과 위세의 위계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Treiman, 1977). 또한 직업은 교육과 연결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변화를 야기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중요 계층변수로 다루어진다(Solga & Konietzka,

1999).

하지만 직업만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세대 간 계층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논의(Osborn & Morris, 1979; 유홍준·신일철·정태인, 2014)와 상대적 위계를 구성하는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과 그에 따른 보수가 중요하다는 논의(한상진, 1984)를 고려할 때 직업뿐만 아니라 소득 또한 계층을 대표하는 중요 변수라고 생각된다. 소득이동성은 사회이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소득의 분배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성태·전병준·임병임, 2013). 따라서 소득 또한 본 연구에서의 중요 계층변수로 다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직업과 소득이라는 변수는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대표하는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해동, 2002; 방하남·김기현, 2002; 차중천, 2002; 박창남·도중수, 2005; 장상수·손병선, 2005; 김위정·김왕배, 2007; 임창규, 2008; 석상훈, 2009; 강신욱, 2011; 최지은·홍기석, 2011; 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2; 최은영·홍장표, 2014). 본 연구에서도 계층을 각각 직업과 소득의 고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보는 방식은 계층을 보는 방식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이 하나의 변수로만 관찰할 수 있는 방식보다는 이를 직업과 소득이라는 다면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에 근거하여 계층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계층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직업의 경우 개인의 직업위세점수를 사용하여 계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reiman(1977)의 국제표준직업위세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 Prestige Scale: 이하 SIOPS)를 사용하였고,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여 계층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편포문제를 보정하고 사용하였다.

제3절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1.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교육평창의 발생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적 토대를 갖고 있다. 기능주의에서 교육은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공정한 교육경쟁은 삶의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이훈병·황성원, 2014). 하지만 기능주의는 선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속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이론적 비판과 함께 현실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상은 갈등주의를 탄생시켰다. 갈등주의는 사회를 계급 혹은 집단 간의 갈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사회는 지배집단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재생산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성태제·강대중·강이철·곽덕주·김계현, 2012). 따라서 갈등주의에 의하면 교육은 가정배경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모순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두 이론 모두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문화, 가치관, 사회적 규범 등을 전승하는 교육의 기능과 함께 공인된 사회기관으로써 학생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선발의 기능을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실제적인 교육의 역할과 평등화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정진곤, 1986). 즉,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기능주의는 업적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여 교육이 평등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주장하고, 갈등주의는 귀속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여 교육은 평등화 효과를 가져 오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한 요인만의 영향이 아니라 두 요인의 영향이 혼재되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론들도 이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두 이론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현실 변화에 맞춘 이론적 발전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한다.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교육이 지위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한 이후 점차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이 받는 교육 또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팽창 현상은 기존의 이론들이 나타내었던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다시금 검토하게 만들었다. 기능주의의 흐름을 따른 기술 기능론의 접근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팽창이 기술의 변화와 직업 분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본다(Clark, 1962).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산업사회에 있어 직업은 필수적이며 기술수준의 향상은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높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교육수준도 높아지게 된다(김신일, 2009). 즉, 산업사회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술은 계속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개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이전보다 학교 교육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결국 불가피한 결과로 교육팽창이 나타나는 것이다(Karabel & Halsey, 1977). 이러한 교육팽창은 기술이 발전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 생각되었다(권애연, 2004). 따라서 기술 기능론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가족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은 감소될 것이라 보았다(방하남·김기현, 2002).

하지만 기술 기능론적 접근과는 달리 Collins(1979)는 교육팽창의 원인을 지위를 독점하기 위한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의 결과로 보는 지위경쟁이론을 주장하였다. 지위경쟁이론은 기술 기능론과 같이 직업이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을 갖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개인이 받은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자

격증 혹은 지식증서(credential)를 통한 자격 증명의 과정이라고 가정한다(이건만, 2011).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력이 높다는 가정을 부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공헌은 대부분 기초 교육의 단계에서 발생하며, 직업에 맞는 기술은 직업적 경험에서 주로 얻어진다고 보았고, 오히려 지식증서를 나타내는 학력이 각 지위 집단이 갖고 있는 일종의 문화자본에 대한 표현으로써 역할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걸맞은 상층의 문화를 지닌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물질 경제에서 얻어진 재산을 문화자본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결국 교육을 받은 사람의 공급이 넘쳐나게 되어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학력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다시 직업의 교육조건을 상승시키고 계속되는 경쟁으로 인하여 학력경쟁은 더욱 상위 수준에서 나타나게 되어 교육열을 동반한 교육팽창이 지속된다(Collins, 1979; 권애연, 2004). 하지만 지위경쟁이론에서는 기술 기능론과 같이 교육의 기회 자체는 점차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위 집단 간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자본에 따라 다음 세대가 위치할 수 있는 지위의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게 된다.

경제학자인 Thurow(1972) 역시 Collins와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그는 현실이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하는 임금경쟁이론과 같이 나타난다면 교육의 팽창은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고 그에 따라 평등화되겠지만 현실에서의 교육팽창은 소득의 분포를 바꾸지 못했으며, 교육의 성장률이 급격해지는 것은 경제의 성장률 또한 급격해지는 결과를 이끌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일자리경쟁이론을 주장하였다. 일자리경쟁이론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대기자들이 각자가 지닌 배경에 따라 일종의 노동대기열(labor queue)을 이루고 이 중에 가장 훈련비용이 낮을 것이라 전망되는 사람이 그에 맞는 일자리에 고용된다는 것으로, 결국 여기에

서의 교육은 중요한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Thurow 또한 일자리에서의 기술은 직장 내 훈련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교육이란 개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소득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를 하게 되고 점점 교육이 팽창될수록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필수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팽창은 사람들 간 지위를 지키거나 상승하고자 하는 경쟁을 만들어내고, 각 지위 집단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자원에 비례하여 방어적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위의 집단일수록 더 많은 방어적 투자를 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팽창이 되어도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은 지속되게 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점차 교육이 팽창되는 것에 관하여 기술 기능론과 지위경쟁이론, 일자리경쟁이론 모두는 교육을 상승이동의 통로로 보고 교육팽창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기술 기능론은 이러한 팽창이 그 사회의 기술에 맞추어 발생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의 평등화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위경쟁이론은 노동시장의 기술 발달보다 지위경쟁을 위한 자격입증의 수단으로써 교육이 팽창하고 이러한 팽창은 지위 집단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불평등한 사회이동이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일자리경쟁이론 또한 지위경쟁이론과 유사하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 간 경쟁이 교육팽창의 원인과 결과 모두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 방어적 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력에 따른 세대 간 사회이동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특히 위 이론들 중 지위경쟁이론은 교육의 팽창이 고등교육으로까지 높아지게 되면 같은 고등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지식증서에서도 질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교육팽창이 계속되

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학력 등과 같은 양적 차원으로만 사용되었던 교육이라는 변수의 특성을 질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실제 진행된 교육팽창과 함께 발전된 이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발전된 이론을 살펴보는 동시에 현실에서의 교육팽창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교육팽창으로 인한 교육의 특성 변화

사회계층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현실에서의 교육팽창에 관한 핵심적인 의문은 교육팽창이 불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특권층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여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인가이다(Shavit, Arum & Gamoran, 2007). 이러한 의문의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가 획득할 수 있는 학력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 결국 자녀가 위치할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자녀의 학력이 보편화되면서 학력을 획득하는데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자녀가 어느 한 계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평등해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에서의 답변은 불평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었다(김기현·방하남, 2005).

Raftery & Hout(1993) 또한 위와 같은 의문과 함께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팽창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교육개혁의 영향을 받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교육팽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발생 확률을 사회계층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세대 내 집단 간 상위교육으로의 이행 확률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나타나는 기회의 평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계층 간 장벽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교육체계가 다소 덜 선별적이게 될 때까지만 확장되었기 때문에 단지 교육 불평등의 발생확률에 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불평등은 최대한 유지된다는 MMI 가설을 제시하였다. MMI 가설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평등주의적인 교육개혁이 평등주의적인 교육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상위 교육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이를 비용과 편익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되고, 편익이 비용을 넘어설 때 교육을 지속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직업지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교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고 편익이 크게 느껴지게 되므로 이들이 교육을 지속할 확률은 부모계층의 수준에 정비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Raftery & Hout(1993)는 부모의 교육과 직업위세를 점수화하여 계층 간 서열을 정하고 이들 계층의 이행확률을 보았을 때, 교육팽창이 100%가 되지 않는 한 비용편익의 계산에 따른 계층 간 상대적인 이행확률이 유지되어 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MMI 가설은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Lucas(2001)는 Raftery & Hout가 내세운 MMI 가설과는 달리 교육팽창으로 인해 일정 교육수준이 포화상태가 되어도 여기에 미치는 계층 간 불평등은 유지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류계층의 행위자들은 어떤 곳이라도 그들의 이익행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일정정도의 이익을 얻어낼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있어 양적인 차이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양적인 이점을, 질적인 차이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질적인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EMI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이 가설은 MMI 가설과는 달리 불평등은 배경이 되는 사회에 맞추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된다는 것으로 교육성취에 관해서 최

소한 양적 혹은 질적 방식 중 획득되어지는 교육의 유형에 맞춰 하나 이상의 방식을 통해 불평등이 지속된다고 본다. 특히 교육이 팽창되어 보편적 교육의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차 질적인 차이가 양적인 차이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을 유지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등 교육단계에서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에 있어서 학년마다 이루어지는 학업지속과 탈락을 구분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성적에 따라 계층화된 계열의 분리³⁾와 선택을 다시 구분하여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부모계층의 영향이 계열 선택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즉, Lucas(2001)는 부모계층의 영향이 학업지속과 탈락의 선택에 있어 교육의 양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불평등의 지속을 보여줌과 동시에 계열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통한 불평등의 지속 또한 경험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Raftery & Hout의 MMI 가설과 Lucas의 EMI 가설은 Trow(2007)가 제시한 고등교육 발전단계이론을 접합해 볼 때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 Trow는 중등교육이 팽창할 당시부터 교육 팽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능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고등교육의 팽창에까지 발전시켜 적용하였다. 그는 교육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하나의 교육수준에 있어 진학률이 15% 이하일 때는 엘리트 고등교육 단계, 50% 이하일 때는 대중 고등교육 단계, 그 이상은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로 보았다(Brennan, 2004). 그의 고등교육 발전단계이론에서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 보편적 교육 단계에 이르러서

3) Lucas는 계열의 분리를 대학의 진학을 준비하는 반, 진학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수학과 같은 학문적인 수업이 포함된 반, 진학을 준비하지 않으며 학문적인 수업이 포함되지 않는 반으로 구분하였고, 이 계열구분과 선택에 있어 직전의 성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는 접근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열려있지만, 서로 다른 교육기관 혹은 교육장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특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Trow의 이론을 고려할 때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 이상에 들어서게 되면 교육수준의 포화상태까지 불평등이 유지된다는 MMI 가설보다는 교육팽창이 교육의 양적·질적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EMI 가설이 더욱 이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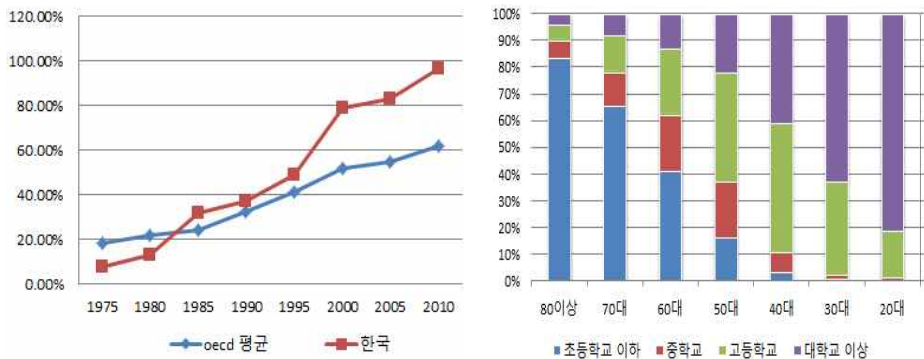
앞선 논의에 따르면 사회계층화의 문제를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교육팽창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거의 완전히 보편화되었으며, 고등교육에서의 변화가 다양한 국가들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의 팽창과 함께 이 수준의 구조가 위계적 차별화를 동반하며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Shavit, Arum & Gamoran, 2007). 따라서 2010년 현재 20대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한국에서의 교육팽창 현황을 볼 때 한국은 이미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세대 간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특성을 기존의 학력 위주였던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서열과 같은 질적인 차원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한국에서의 교육팽창과 교육의 특성 변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육팽창의 정점이 된 고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팽창의 모습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들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의 팽창이 나타났다. 특히 미

국, 유럽 등과 같은 산업사회의 선진국에서는 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의 팽창이 진행되었고, 이 중 한국은 예외적인 폭발적 교육팽창을 보이게 된다(김신일, 2015). 실제로 1975년부터 2010년까지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교육팽창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5년 18.07%에서 2010년에는 61.73%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75년 7.73%에서 2010년에는 96.44%로 1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성장을 보임으로써 폭발적인 교육팽창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에서의 세대별 교육수준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세대가 지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중등교육 인구가 50대까지 증가하였다가 20대에 들어서는 고등교육에 진학 이상을 한 인구가 8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교육은 50대에 22.11%에서 아래 세대로 가면서 각 세대별로 20%씩 증가하여 그 속도가 매우 급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한국은 가장 최근 세대에 있어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강력하게 교육팽창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론적 배경에서와 같이 계층화 효과를 일으키는 교육의 특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산업사회국가 고등교육팽창 <그림 2> 한국의 세대별 교육수준

<그림 1> 출처: UNESCO, Tertiary education (ISCED 5 & 6) Gross enrolment ratio⁴⁾.

<그림 2> 출처: 통계청, 2010 한국인구총조사, 성·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⁵⁾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팽창에 따른 교육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팽창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팽창 단계를 보여주는 세대를 각각 나누어 세대별로 교육의 영향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방하남·김기현(2003)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코호트 간 교육계층화의 변화양상을 학력단계 및 경로(계열)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세 이상의 연령코호트를 설정하고 가정배경을 부모의 교육연수, 부의 직업, 형제자매의 수로 보아 고등학교 계열별 진학 여부와 대학교 계열별 진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교육연수만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어린 코호트일수록 부의 직업의 영향이 줄어들고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은 거의 선형적으로 영향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질적 차원을 고려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계열별 진학을 다항 로짓분석을 한 결과 오히려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코호트일수록 가족배경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강화됨을 볼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양적 차원의 교육변수인 교육연수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계열별 진학 여부를 보았을 때 계층화 효과가 질적인 차원으로 변환되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즉, 양적 불평등 체계에서 질적 불평

-
-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등교육에 관한 Gross enrolment ratio(총 취학률)은 (현재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 (고등교육 단계 연령(중등교육 졸업나로부터 5년))으로 계산되어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높고 100%가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 자료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추세와 함께 세계 각국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료라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 5) 인구총조사의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자료에서 교육은 미취학과 각 교육수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일반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의 졸업, 재학, 중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자료는 중퇴자를 아래의 수준으로 고려하여 이를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재학+졸업), 고등학교(재학+졸업),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등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병영(2008, 2009, 2010, 2011)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함의를 지닌다. 그는 4년간에 걸쳐 1943년부터 1986년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교육 불평등과 사회이동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는 각 차수마다 1차(1943-1955), 2차(1956-1965), 3차(1966-1975), 4차(1976-1986)로 세대를 나누어 자료를 구축하고 마지막 차수에서는 1943-1986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각 코호트 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의 팽창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배경을 부모의 직업과 교육, 가정형편, 성장지역으로 보고 이러한 배경이 본인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계열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이는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교육연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성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고, 가정배경의 영향은 부의 직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교육팽창이 성별과 가족배경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계열별 진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교 진학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진학, 미진학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가정배경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질적인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어 교육팽창이 만들어내는 교육 특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팽창과 그에 따른 교육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하남·김기현과 박병영의 선행연구는 고등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전문대인지 일반대인지로만 구분하여 질적 분화를 면밀히 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매우 일관된 두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배경이 학력에 미치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학교 계열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석에

서 사용된 연령코호트보다 더 최근의 코호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강할 것이라 예상된다.

여유진(2008)은 교육 불평등의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나타나는 교육 특성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그녀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정도를 파악하고,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학력이 매개하여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교육의 소득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20~59세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부의 교육수준, 소득계층, 직업분류를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로 활용하여 자녀의 학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20~39세, 40~49세, 50~59세의 연령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보다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컸지만, 최근의 코호트를 볼 때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증가한 반면 학력의 순효과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학력만으로 자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고, 어떤 대학을 나오는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본 여유진(2008)의 주장과 같이 교육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팽창의 상황과 그에 따른 교육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한국에서도 교육팽창의 발생에 따라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 특성의 영향이 변화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는 이전에 행해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양적 차원의 교육 특성이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질적 특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며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결같이 대학의 계열로만을 분석하며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열만으로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보기에는 개략적인 면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질적 교육변수가 필요하다. 특히 더욱 세밀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학서열과 같은 변수들의 활용은 교육의 질적 차원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을 영향을 관찰하는데 있어 교육특성의 변화과정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양적인 교육의 측면과 질적인 교육의 측면을 각각 대입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세대 간 불평등에 미치는 교육 영향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선행연구 고찰

앞선 이론적 배경에 따르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하지만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사회에서 교육팽창이 일어나고 있으나 예상과는 달리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 지속의 원인은 교육팽창으로 인하여 학력과 같은 양적 차원의 교육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계층화 효과가 줄어드는 반면, 이러한 계층화 효과가 질적 차원의 교육적 특성에 의해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교육팽창으로 인해 변화된 교육특성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1.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양적 교육성취의 영향

교육팽창은 기회의 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양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계층 간 학력 격차가 줄어들고 세대 간의 사회이동성이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가 지속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연 현실에서는 이론과 같이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의 경우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매진하고 있는 주제이며, 특히 교육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팽창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팽창의 발생에도 지속되는 불평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Iannelli & Paterson(2005)는 지난 50년간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교육팽창이 사회계층 간 교육성취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이동성

을 늘렸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교육팽창의 상황을 나타내는 세대별 코호트로 집단을 나누고 이들의 교육성취와 계층배경 그리고 이들이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이동의 절대적 비율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에 맞춰 교육의 팽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층 간 기회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위의 계층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Lindley & Machin(2012)은 세대 간 사회이동을 예측하기 위해 세 가지 상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영국에서의 급속한 교육팽창이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으로서 교육팽창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학력획득의 증가를 더욱 가속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는 임금격차의 변화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학력에 대한 임금의 상대적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의 동시적인 변화는 이전 세대 내에 존재하던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되며 결국 사회이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함의를 도출해 내며 교육팽창 이후에도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rikson & Goldthorpe(2010) 또한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세대 간 소득과 계층이동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사회이동성의 감소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단편적인 분석은 계층이동을 정확히 잡아낼 수 없으며, 가구소득과 부모계층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세대 간 이어지는 경제적 격차의 지속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의 직업을 5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소득 또한 5급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을 확인하고 여기에 자녀의 교육성취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이동성의 저하를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Blanden, Gregg, & Machin(2005)은 영국의 사회이동성을 확인

하는데 있어 세대 간 탄력성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산업 국가들⁶⁾과의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명확히 보고자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세대 간 이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국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영국보다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다소 덜 하지만 학업성취가 노동시장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종 간 격차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들은 영국의 1958년생과 1970년생의 부모소득 및 성인기 소득을 이행렬로 보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이동성이 악화됨을 보여 주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대 간 소득이동에 교육이 차지하는 정도를 분해하였고, 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과 동시에 임금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이 더욱 커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1970년대 후반 코호트를 추가하여 실제 코호트들에서 계층 간 자녀의 교육성취 수준을 살펴보니, 16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자녀들의 교육성취는 계층 간 격차가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학교육을 마친 자녀들의 비율을 보았을 때 계속 계층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팽창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위계층의 자녀들은 높은 학력을 갖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공산이 크며 이는 결국 사회이동성의 저하를 설명하게 된다.

이처럼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팽창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회이동성의 저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이 확대되어도 이러한 기회를 상위계층의 자녀들이 먼저 점유하게 되고 결국 자녀들도 상위계층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중범·전승훈(2008)은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조금 더 구체적인 경로로 분

6) Blanden, Gregg, & Machin(2005)은 영국, 미국, 서독,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비교하였다. 이중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이동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서독의 경우 중간,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석했는데 이들은 부모의 양적인 교육수준이 부모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대 간 이전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소득계층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금 자녀의 교육에 투자되어 계층의 지속을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경험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빈곤의 이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은(2008)은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을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아동기 시절 경제적 생활상태를 묻는 것으로 부모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고 자녀의 빈곤은 최저생계비 혹은 균등화 소득의 하위 35% 미만으로, 자녀의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5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에서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자녀의 빈곤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희삼(2009) 또한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에 있어 교육을 연결고리로 상정하고 경제적 대물림에서 교육을 통해 이어지는 부분을 분해함으로써 세대 간 경제적 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분석 결과 남성 자녀의 경우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이 부모와의 세대 간 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48.2%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는 68.8%로 교육이 세대 간 경제적 이동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희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경제적 탄력성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동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매개적 역할을 명확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은영·홍장표(2014)는 앞서의 연구들과는 달리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직업계층을 중심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세대 간 직업적 지위가 부모와 자녀 간 대물림되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 간 직업구성과 직업군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직업을 3개의 직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적 지위의 대물림이 확인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지위인 1군에서의 대물림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대물림은 교육이라는 간접경로를 통해 직업적 지위의 대물림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직업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팽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교육성취를 매개로 하여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의 경우 자녀세대를 조사한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연령이 높아 급속도로 진행된 한국의 교육팽창 상태를 반영하여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⁷⁾ 따라서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연구함에 있어 소득 혹은 직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개념 모두 계층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소득과 직업의 이동을 각각 확인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7) 실제 분석에서 사용된 자녀집단의 나이는 안종범·전승훈(2008)의 연구에서 2004년 기준으로 평균 31.6세이며, 이상은(2008)의 연구는 2005년 기준 평균 42.5세, 김희삼(2009)의 연구는 1998년 기준 평균 남자 25.3세, 여자 22.5세, 최은영·홍장표(2014)의 연구는 2010년 기준 평균 만 35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자녀세대(2005년 기준 만 19세)와는 최소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앞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할 경우 교육팽창이 더욱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

교육을 질적 차원으로 고려한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드물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계층과 질적 교육성취, 질적 교육성취와 지위획득이라는 두 경험적 연구들을 매개분석에 있어 분절된 인과적 통로로 상정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또한 같이 확인하여 볼 것이다.

1) 가족배경이 질적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배경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교육팽창의 상황을 반영하듯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질적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질적 차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위세나 시험점수 등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시험점수의 경우 점수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고 이것이 대학의 질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Davies & Guppy(1997)와 Alon(2009)은 SAT 점수를 사용하여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Davies & Guppy(1997)는 부의 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교육연수에 가족구성변인을 더해 사회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배경이 높은 SAT 점수를 요하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경 중 형제자매의 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Downey(1995)의 논의처럼 형제자매의 수 또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on(2009)은 SAT 점수를 급간으로 나누어 질적 선별성을 나타내었는데, 그의 분석 또한 사회적 계급이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선별적인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근 세대로 올수록 선별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점점 질적 교육성취가 중요해

짐을 시사하였다.

Boliver(2011)의 연구는 Alon(2009)의 결과를 더욱 지지하게 만든다. 그는 영국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점점 증가하여 35%에 다가가므로써 MMI 와 EMI 가설 모두를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35%의 취학률인 상황에서도 MMI 가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EMI 가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교육팽창이 일어나면 사회적 배경이 고등교육의 질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Triventi(2013)는 이러한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흐름을 유럽 11개 국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녀가 진학한 학교 위세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전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사회적 불평등과 고등교육 기관의 계층화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연구 또한 수능점수와 대학의 위세가 주로 고등교육의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 김경근(2005)은 계층과 지역이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수능점수의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사교육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학업성취에 있어 본인 스스로의 공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보았다. 가족 특성에 관하여 형제자매 수나 한부모가구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모의 계층에 있어서 학력과 직업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력의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보았다.

유한구(2007) 또한 부모의 계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녀의 모의수능 점수에 사교육과 교사 요인, 수업태도가 매개하는 것보다 부모의 직업, 교육, 소득으로 구성된 사회계층이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수능점수가 아닌

대학위세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변수용·김경근(2010)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선택 및 대학의 위계서열이 나타나는 교육계층화 현상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본인의 공부 시간이 중요함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높은 위세를 지닌 대학일수록 여성에 불리한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문화활동 등의 영향은 한국적 맥락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외에 백병부·김경근(2007)의 연구는 내신과 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수능에만 가정의 경제자본과 사교육이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위주의 대입 정책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하였다.

김영철(2011)의 연구는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 선천적인 능력의 통제를 시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는 타 연구와는 다르게 중2 시절의 성적을 타고난 재능으로 설정하여 통제함으로써 본인이 발전시킨 능력만을 보고자 하였다. 비록 중2 시절의 성적이지만 이러한 통제를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이러한 타고난 지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교 계열과 혼자 공부한 시간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이나 성별의 경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시험점수나 대학의 위세에 강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적인 관계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교육, 성별, 형제자매, 개인공부 시간, 한부모가구 등의 주변변수는 공부 시간 이외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에 분석에 있어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질적 교육성취가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

질적 교육성취가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계층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임금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연구결과 대학의 질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났다(Brewer, Eide, & Ehrenberg, 1999; Black & Smith, 2004, 2006). 이러한 연구들 중 대학의 질을 시험점수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하여 더욱 면밀히 대학의 질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Long, 2008; Hussain, McNally & Telhaj, 2009)

Long(2008)은 SAT 점수, 교수 학생 비율, 수업료와 장학금 등의 다양한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합성하여 초기 성인기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질이 시간별 임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히 남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소득에도 강력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 교육성취가 임금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분석에 타 연구들(Dale & Krueger, 2002; Black & Smith, 2004)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대학의 질이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Hussain, McNally & Telhaj(2009) 또한 Long(2009)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질을 다양한 변수를 합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⁸⁾ 연구결과 개인의 배경을 모두 통제된 후에도 대학의 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 상위 집단에서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어 대학의 질이 미치는 영향의 격차 또한 매

8) Hussain, McNally & Telhaj(2009)는 대학의 질을 연구실적 평가점수, 교수 학생비율, 재등록률, 입시시험점수, 교수 임금수준, 학생당 지출 지표를 요인분 석하여 변수화하였다.

우 큼을 시사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대학의 질을 보여주며 소득과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과는 달리 Borgen(2015)의 연구는 노동시장 환경을 달리 구성하여 그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등의 분권화된 임금 협상을 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중앙집중적 임금 협상을 하는 국가에서도 위세가 높은 학교 졸업생의 소득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더욱 상승함을 보여 주었다. Hussain, McNally & Telhaj(2009)의 연구에서처럼 소득분포의 상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협상체계가 다를지라도 대학의 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게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국내연구의 경우 질적 교육성취가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질적 교육성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학교의 계열로 구분 짓거나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수능점수나 대학의 서열을 사용한다. 박환보·김성식(2011)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직업지위와 월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개인수준과 대학수준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지위에는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출신 고등학교 계열 등이 강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학의 계열로 나타낸 대학의 서열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즉, 개인특성, 부모배경, 대학수준은 개인의 직업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서 변수들을 순서대로 넣었을 때 출신 고등학교 계열과 대학계열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계열은 학교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두 수준 간의 차이만으로는 질적 차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보여 주기 어렵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한 시험점수나 대학서열이 사용된다. 또한 수능점

9) 박환보·김성식(2011)의 연구에서 개인수준은 인적사항과 출신 고등학교 계열, 대학에서의 성적 및 어학연수 등을 나타내는 개인배경과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가족배경으로 구성되어지며, 대학수준의 경우 대학의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대학계열 등으로 구성된다.

수와 같은 시험점수가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서 개인의 지적능력이나 생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홍균·문혜영, 2007; 김홍균·장지혜·김태영, 2013). 이와 같은 질적 교육성취가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임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적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김홍균·장지혜·김태영(2013)은 수능성적이 첫 임금과 경험이 쌓여감에 따른 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수능성적은 첫 임금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며 경험에 따른 임금의 변화는 최상위등급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김홍균·문혜영(2007)은 수능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Mincer 임금 방정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능성적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성별과 연령의 영향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대학유형별로 추가 분석을 한 결과 수능성적의 영향은 일반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장수명(2006)은 일반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대 내에서도 서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대학의 교육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휘정(2012)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특성과 대학특성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개인특성에는 성별, 연령, 부의 학력 등이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대학교육의 특성에서는 계열과 어학연수 등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오호영(2007)은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적 차이가 수능점수를 통해 임금격차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김진영(2007)의 연구에서 수능점수를 통제하여도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취업확률과 연소득이 낮다는 분석과 공통점을 갖는다. 강상석(2007)의 연구는 타 연구들과 달리 임금과 직업지위를 합성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사회경제종합지수로 변수화하고 여기에 출신 대학의 서열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타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력, 부친의 학력, 가

구소득 등이 지위획득에 있어 양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서열은 명문대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았을 때 개인의 임금과 지위에 있어 대학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성별, 출신 고등학교 계열, 어학연수 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특성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자녀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시험점수나 대학의 위세가 자신의 지위획득에 미치는 부분적 과정에서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것이다.

3)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

앞서 얘기하였듯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확인하는 국내외 연구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질적 교육성취라는 변수를 면밀히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즉, 질적 교육격차를 자세히 나타낸 연구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은 임의로 질적 차원을 설정하거나 몇 개의 급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Karabel & McClelland(1987)의 연구는 비록 분석에 있어 분석대상의 제한이 많지만 직업적인 지위를 중심으로 가정 배경이 질적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초기의 연구로서 중요하다. 이들은 가족 배경에 있어 부의 직업을 블루칼라, 낮은 지위의 화이트칼라, 관리직, 전문직으로 나누고 질적 교육성취를 SAT를 기준으로 한 급간으로 나누어 자녀의 직업지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부의 직업이 상위의 직업일수록 자녀가 상위의 대학에

서 얻은 지식증서를 직업적 성공으로 전환하기 쉽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Borgen(2015)은 소득분포에 있어서 대학의 질¹⁰⁾이 만들어내는 실질적 소득의 격차가 가족배경에 의한 두 번째 필터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즉, 가족배경의 첫 번째 필터로 인하여 상위계층의 자녀는 대학의 질이 높은 곳으로 갈 확률이 커지고, 두 번째 필터로 인하여 이들이 나온 높은 대학교육의 질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적 도입 높은 임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은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Triventi, 2013; Jacob, Klein & Iannelli, 2015). 이러한 연구들 중 Triventi(2013)의 연구는 질적 교육성취¹¹⁾의 매개효과를 잘 나타낸 연구이다. 그는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경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질적 교육성취가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고등교육 졸업률이 가장 높은 가장 최근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직업적 성과 사이에 자녀가 획득한 고등교육의 질이 매개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모형(reduced model)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고등교육의 질을 포함한 완전모형(full model)을 비교분해 하였다. 분석결과 독일을 제외한¹²⁾ 나머지 국가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진 자녀와 가장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가진 자녀 사이의 직업지위와 소득의 격차에 있어 모형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직업적 성과를 자녀가 획득한 고등교육의 질의 차이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0) Borgen(2015)은 SAT 점수로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것을 불완전하다고 보고, 대학의 질을 평균 GPA, 교수연구점수, 교수 학생 비율, 학생규모, 대학규모, 교환학생 비율로 구성하였다.

11) Triventi(2013)는 자신이 만들었던 기관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학교의 질을 상위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하여 질적 차이를 표현하였다.

12) 독일은 고등교육 졸업자 사이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간 차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육기관의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acob, Klein & Iannelli(2015)의 국가 간 비교연구 또한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앞선 연구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분석대상인 영국과 독일의 특성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이다. 독일은 교육의 선별성이 낮고 일자리 배분에 있어 사회적 배경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메커니즘의 작동이 효과적이지 않다. 반면 영국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져 사회적 배경과 자녀의 직업적 성과 사이에 질적 교육성취¹³⁾가 매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이를 보았을 때 국가의 특성 또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앞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잘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두 세대의 계층을 대표하기에는 각 분석마다 변수구성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국제비교를 한 두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배경을 부모의 교육수준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부모계층의 효과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연구는 국외연구에 비해 아직 면밀한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며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대동(1997)의 연구는 교육의 양적·질적 차원 모두를 고려한 연구이다. 그는 부모의 학력과 본인의 지능, 본인의 교육수준 및 최종학교수준¹⁴⁾ 등을 주요변수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직업성취/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는 한 고등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본인의

13) Jacob, Klein & Iannelli(2015)은 교육의 질적 차이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독일)와 전통이 깊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영국)의 차이로 표현하였다.

14) 한대동(1997)은 최종학교수준을 질적 차원의 교육변수로 고려하여 입학성적과 사회적 평판을 토대로 5등급으로 나누었다.

직업성취에 있어 질적 차원을 나타내는 최종학교수준 변수만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성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교수준에는 부의 학력과 고3 시절의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 성취에 있어 부모세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였지만, 추후 학업성취와 최종학교수준에 관한 분석에서는 가정배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선정된 학교가 이미 도내에서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 구성되어 가정배경의 선별효과가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대동의 연구는 이미 비슷하게 선발된 대상을 선정하여 가정배경의 총체적 영향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부모의 요인 중 학력만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있어 가정배경과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그 중 질적인 교육성취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혜영·박인중·성기선·한만길(1998)의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한대동의 연구보다 일반화될 수 있고 고등학교의 계열 또한 고려할 수 있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획득에 학교교육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교육이 첫 번째 직업과 현재 직업에 미치는 효과를 Blau & Duncan의 연구에 따라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부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설정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연수, 고등학교 계열, 대학교육 여부, 최종학교에 대한 평가¹⁵⁾로 설정하여 다양한 특성의 교육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부의 교육만이 영향을 미쳤던 고등학교 계열 선택을 제외한 모

15) 이혜영·박인중·성기선·한만길(1998)은 질적 교육성취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학교에 대한 평가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는 자료에서의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한 대학에 대해 일반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1-3류 대학으로 구분한 것이다.

든 교육변수에 대해 부모의 직업과 교육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첫 번째 직업에 미치는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에 비해 매우 약한 직접적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현 직업에는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본인의 교육과 첫 직업 중 첫 직업이 더 강력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첫 직업에는 본인 교육의 직접적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직접적 영향력의 비교에만 그쳐 전체적인 관계를 조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한대동의 연구와 같이 대학의 질적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의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수혜·김경근, 2010; 이자형·이기혜, 2011; 이자형, 2013). 이 연구들은 모두 청년패널을 사용하였고 급간으로 나뉜 수능점수를 대학의 서열이나 질적 교육성취를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과 가구소득으로만 설정하였으며 이는 직업위세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본인의 직업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과 직업위세로 구성하였으며, 이자형·이기혜(2011)의 연구만이 직업을 기업체 규모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 간 다양한 변수들이 매개를 한다고 보아 수능을 중심으로 사교육, 어학연수, 친구 성향을 공통적으로 보고 이외에 비인지적 능력(이자형·이기혜, 2011; 이자형, 2013)이나 자기개발(김수혜·김경근, 2010)을 추가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수능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어학연수 또한 본인의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취업

사교육의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상과 달리 중고등학교 사교육도 직간접 영향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질적 교육성취는 부모와 자녀의 지위 세습 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경우 본인이 대졸취업자인 시점에서 조사한 부모의 지위가 이들의 수능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는 부모의 지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을지라도 엄밀히 시간적 역행이라는 논리구조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기억에 의거한 주관적 응답과 급간으로 나누어진 수능점수 변수도 이 연구들이 가진 한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맞는 모형설정과 좀 더 엄밀한 질적 교육성취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어 보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라는 계열에 따른 질적 차이를 보여 주는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내에서의 질적 분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의적 기준을 따르거나 이분법 혹은 다분법의 방식으로 표현됨을 보았다. 또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연구 또한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차이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본 연구가 하고자 하는 분석에 있어 그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질적 교육성취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었기에 더욱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적 교육성취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함께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제1절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팽창은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오고 따라서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급격한 교육팽창을 겪은 한국에서도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불평등이 재생산 될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 나아가 교육기회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따르면 그 원인은 기존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매개요인으로 대표되었던 교육의 특성이 학력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유형이나 서열과 같은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매개 역할을 하는 교육에 있어 질적 특성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가설을 세워 현실에서의 경험적인 검증을 할 것이다. 또한 교육팽창 이후 불평등을 매개하는 교육의 특성 변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에서는 연구문제와는 달리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계층은 직업위세와 소득으로 표현하며, 양적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로, 질적 교육성취는 자녀가 입학한 대학의 계열과 서열로 정의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1.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1.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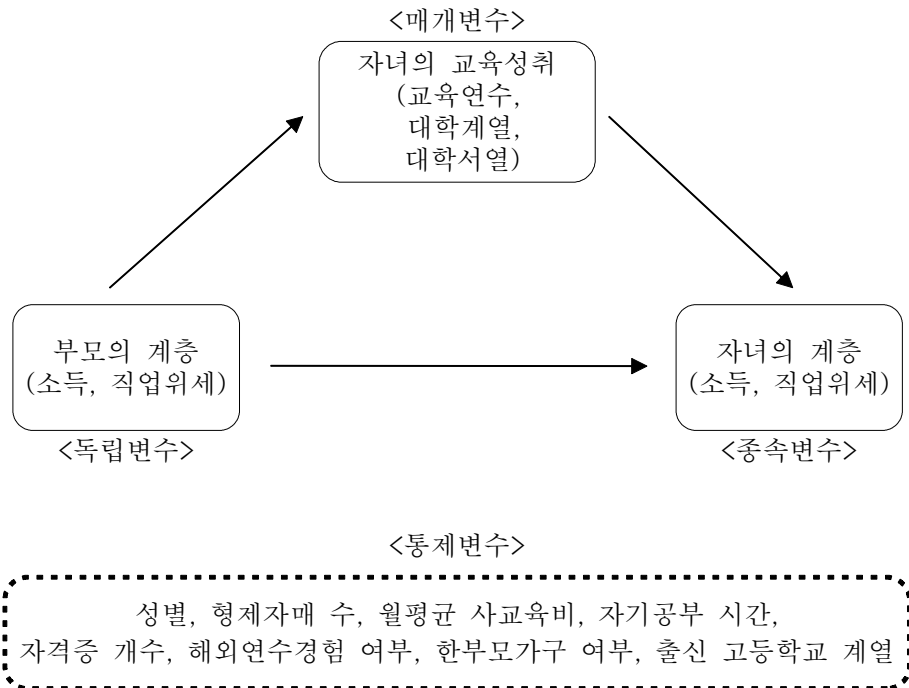
연구가설 2-2.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3.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서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4.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서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가설을 종합하면 부모의 직업위세와 소득이 자녀의 직업위세와 소득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녀의 양적·질적 교육성취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을 실제 분석에 옮기기 위해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 사이에 자녀의 양적·질적 교육성취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및 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10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교육과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 현재 중학교,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모집단을 층화집락추출¹⁶⁾을 통해 각 2000명씩 표집하고 이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2004년을 시작점으로 매년 조사되어 현재 2014년 11차 조사까지 진행되었고, 2013년 10차 자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10년 동안 추적된 자료가 누적됨에 따라 1차 조사 당시 고3 이었던 학생들이 10차에서는 대다수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간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수능점수나 성적, 학교생활 등 학생들의 상세한 교육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및 학교를 병행 조사¹⁷⁾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16)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밝힌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7) 한국교육고용패널의 고3 패널은 조사학생의 가구와 학교(담임교사, 학교행정가)를 병행조사 하였는데, 가구의 경우 3차 연도까지, 학교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1차 연도까지 병행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활용은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부모 배경과 환경, 학생의 질적 교육 성취,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한 계층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자료 중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인 1차 가구자료 및 1차 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시절 가족배경과 학생 개인 및 환경에 관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학생의 대학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10차 연도까지의 학생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현재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첫 조사 이후 1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시점에서 조사된 10차 학생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9차 학생자료에서 보충하여 사용되었다.

대학서열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 이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진학사의 대학·학과별 평균수능점수 자료이다. 이 자료의 경우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학·학과별 평균 입학수능점수를 조사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구성되어 신뢰성이 높고 포괄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0년간의 자료축적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된 대학들의 수능점수만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요정보인 학생시절 부모의 직업 및 소득, 본인의 교육성취로 대변되는 학력, 진학 대학계열, 진학 대학명, 현재 본인의 계층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 및 소득 정보를 포함하며 가구 구성과 학생시절의 학습현황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총 4000명의 조사학생 중 1차 연도 가구자료가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득

혹은 직업이 파악된 3810명을 구하여 고3 시절의 부모 계층정보와 가구배경, 당시 학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여기에 10차 연도 2551명의 학생자료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자리가 있으며 일자리에 관한 소득 혹은 직업코드 정보가 있는 1671명에 같은 방식으로 구해진 9차 연도의 조사 중 242명을 추가하여 총 1913명의 자료를 확보한 후 앞서 만든 가구자료와 통합하여 매칭이 되지 않는 69 사례를 제외한 1844명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해 중졸 2명과 직업코드가 미분류이면서 소득 정보까지 없는 8명, 직업분류의 개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183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¹⁸⁾

실제 분석은 가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대상 또한 달라진다. 분석은 크게 양적 교육성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중심의 분석과 질적 교육성취를 대상으로 한 대학계열, 대학서열 중심의 총 3단계의 분석으로 진행되며, 각 분석마다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추출된 1833명 모두가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소득이동을 보는 분석은 1634명이며, 직업이동을 보는 분석은 1673명이 분석대상이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고등교육에 진학한 1358명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동은 1210명, 직업이동은 126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단계인 대학서열 중심의 분석은 일반대학에 진학한 714명 중 진학한 학교의 이름 혹은 코드가 있고 진학사의 대학·학과별 평균 수능점수 자료를 통해 만들어낸 대학서열자료와 매칭되는 665명을 대상으로 소득이동 분석에는 609명, 직업이동 분석에는 61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탈락률을 고려해

18) 최종 분석 대상 1833명 중 10차 연도 자료에서 1598명, 10차 연도 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조사정보의 미흡으로 9차의 정보를 사용한 185명 이외의 50명은 9차 연도 자료에서만 조사된 인원이다.

보면 1차에서 10차 연도까지의 자연탈락률이 36.2%이며, 10차 연도의 2551명과 9차 연도에서 조사된 50명이 합쳐진 2601명으로 계산할 경우 35%의 자연탈락이 발생하였다. 자연탈락을 제외하고 2601명 중 연구조건에 맞추어 768명이 제외된 총 분석대상은 1833명으로 29.5%가 추가로 유실되었으며, 결국 전체표본에서 45.8%만을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연구대상이 설정되고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연구대상은 전체표본의 34%만을 대표하게 되며,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16.6%만을 대표하게 되어 상당한 표본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본손실을 표본의 대표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만약 표본손실이 체계적으로 발생되었다면 이는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시키고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과 각 분석 단계별 연구대상 사이의 주요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 표본손실로 인한 대표성 저하와 각 집단 간 특성의 변화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1차 연도 주요 학생정보와 주요 가구정보가 있는 3810명을 전체표본으로 설정하고, 분석단계에 따라 1833명, 1358명, 665명을 각각의 분석집단으로 설정하여 탈락집단 분석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함의를 파악할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독립변수는 계층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했던 것과 같이 계층이란 객관적 속성을 공유하는 사회범주이며, 연속적인 위계를 가진다.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 수준이나 소득, 직업 등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고저 혹은 다과에 의해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에 핵심적인 요소를 직업과 소득으로 보아 분석을 진행하며, 이는 계층을 다면적 측면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계층변수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의 경우 분석자료에서 한국고용직업분류로 제시된 본인의 직업코드를 Treiman의 국제표준 직업위세척도 중 가장 최근의 척도인 SIOPS-08로 치환하였다.¹⁹⁾²⁰⁾ SIOPS-08 척도는 최하 5점(자급자족 농민, 어민, 수렵채취

19) 본 연구에 사용된 SIOPS는 산업사회론의 논리에 근거하여 모든 산업사회에서는 단일의 직업위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Treiman(1977)이 대중을 대상으로 직업지위를 평가한 60개국의 직업위세 조사를 비교연구하여 개발된 것이다(장홍근, 2008 재인용). 직업위세를 나타냄에 있어 SIOPS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직업위세를 분석함에 있어 사용의 적절성이 입증되었으며(최태룡, 2001; 유홍준·김월화, 2006; 최태룡, 2009; 김월화·유홍준, 2013;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4),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사용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최근 개정이 SIOPS의 토대인 최근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를 원칙으로 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척도설계에 있어 SIOPS의 단점이었던 여성인구의 배제가 가장 최근의 척도인 SIOPS-08에는 반영이 되어 이를 해결하였고(Ganzeboom & Treiman, 2010), 직업위세가 척도 개정 간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최태룡, 2001; 김월화·유홍준, 2013). 단, 세대 간 사회계층화에 있어서 직업만으로는 계층을 설명하기 힘들며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포함된 사회경제적지수(Socioeconomic Index) 등이 설명력이 더 높다는 주장(방하남·김기현, 2001;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세대 간 사회계층화를 분석할 것이다.

20)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사용한 직업코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5년 발표한 한국고용직업분류이다. 이를 SIOPS로 변환하기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맞추기 위해서는 2005년 한국고용직업분류를 2007년에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

인)부터 최고 78.16점(대학교수 및 고등교육 교육자)까지의 위세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업코드에 맞는 직업위세 점수가 부여된다.²¹⁾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직업코드에 따른 직업위세 점수를 사용하여 직업계층을 나타낼 것이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고 편포문제를 보정하기 위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2013년도의 자녀 계층이며,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자녀의 직업은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직업위세점수를 파악한 후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더 높은 위세를 가진 직업을 선택하고,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이지만 직업코드는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있는 코드에 맞는 직업위세점수로 사용한다.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가진 모든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소득²²⁾의 합을 로그로 변환한 것을 사용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자녀의 고3 시절 부모의 계층이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직업은 부모 중

로 변환 후 이것을 다시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전환해야 한다. 그 후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전환된 정보를 국제표준직업분류와 맞추면 SIOPS로 변환이 가능하다. 한국고용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맞춰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지만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직업분류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세분류에서 맞지 않으면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순으로 맞추었고, 그럼에도 맞지 않고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다양한 코드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코드들의 위세점수에 맞는 평균값을 구하여 정리하였다.

21) 변환된 직업위세점수(SIOPS-08)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2) 한국교육고용패널 사용자지침서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한다.

높은 직업위세를 가진 사람의 직업위세점수로 설정하며, 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²³⁾을 로그로 변환한 것을 사용한다.

2. 매개변수

1) 양적 교육성취

첫 번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가 성취한 양적인 교육변수는 교육연수로 측정하며, 졸업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중퇴자는 절반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중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20대에서 중졸 미만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은 0.4%이며, 이 또한 더욱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대상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자료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중졸의 학력을 가진 2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²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육연수는 고등학교 졸업=12년, 전문대 중퇴=13년, 전문대 졸업·일반대 중퇴=14년, 일반대 졸업=16년, 석사 중퇴=17년, 석사 졸업=18년으로 구성되었다. 박사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한 케이스가 없기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3) 한국교육고용패널 사용자지침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가구소득이라 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한다.

24)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미만의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을 합쳐 1.64%로 나타나며, 이 비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의 제외가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질적 교육성취

질적 교육성취는 양적 교육성취와는 달리 같은 교육수준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팽창에 의해 보편적 교육수준이 된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다.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대학계열과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으로 나누어지며,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일반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의 대학서열은 수능점수를 토대로 구성되며, 수능점수의 경우 개인의 지적능력을 잘 반영하며(김홍균·문혜영, 2007), 학생이 진학한 대학의 질을 측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김희삼·이삼호, 2007). 또한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학서열화가 다른 요인보다 수능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최수태, 2000; 김안나, 2003; 박거용, 2004; 오호영·김승보·정재호, 2006; 김진영, 2006; 정진상, 2010).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대학이 기능에 따른 특성분화가 되지 못하였고 대학의 목적이나 운영의 차이가 없기에 수능을 획일적인 선발방식으로 사용하며(김안나, 2003), 한국의 대학서열과 대학의 교육력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정진상, 2010), 신뢰성을 지닌 전국 규모의 대학평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오호영, 2007). 또한 장수명(2006)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여건 서열과 수능성적 서열로 임금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도 성적에 의한 임금차이가 더욱 주요하게 나타나 한국에서의 수능성적은 선별기능을 나타내는 대학서열에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Alon(2009)은 미국에서의 교육팽창 또한 고도로 계층화된 고등교육 체계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선별적인 기준, 즉 시험점수와 같은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분석수준이 되는 고등교육에서의 변수설정은 먼저 대학서열이 경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며, 대학서열은 일반대학 내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수능을 기준으로 대학서열을 보게 될 경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시험 성적으로 서열화되어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며,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보다는 학생부나 면접 등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시험 점수를 토대로 한 대학서열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정진상, 2010).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학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구축한 1994년에서 2003년까지의 전국 4년제 대학·학과별 평균수능점수 자료 중 최소 2번 이상 조사된 대학을 대상으로 1994년에서 2003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대학의 학과별 수능입학 원점수를 백분위로 변환 후 각 대학의 학과별 점수를 평균하여 각 대학의 평균 백분위 점수²⁵⁾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대학의 점수에 따라 연도별 대학서열을 구한 후 조사 연도마다 조사된 대학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연도별 서열을 백분위로 변환하여 10년간의 대학별 백분위를 평균한 값을 토대로 최종적인 대학서열을 구하였다. 또한 대학서열을 구함에 있어 의학계열(수의예, 약학, 의예, 치의예, 한약, 한의예)은 대학서열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오호영, 2007) 항상 높은 백분위를 보이기 때문에 대학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학계열이라는 하나의 서열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총 187개 대학과 1개의 의학계열로 구성된 대학서열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 188개의 대학서열을 분

25) 김안나(2003)에 따르면 백분위는 정확한 수학능력 수준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같은 교육과정에서 연도별로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의 상대적 위치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석에 활용하였다.²⁶⁾ 대학서열과 각 연도별 대학 백분위와의 상관관계는 부록에 따로 제시하였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교육성취와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통제변수의 구성

변수 명	변수 설명 및 측정방법
성별	남=0, 여=1
형제자매 수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의 수
한부모가구 여부	양부모=0, 한부모=1
사교육비	로그를 취한 고3 시절 1년 동안 한 달 평균 사교육비
고3 시절 공부 시간	고 3 시절 주당 자기공부 시간. 3시간미만=1, 3~5시간=2, 5~10시간=3, 10~15시간=4, 15~20시간=5, 20~25시간=6, 25~30시간=7, 30시간이상=8
해외연수 경험	없음=0, 있음=1
자격증	현재 보유한 자격증 개수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0, 실업계=1

26) 연구를 위해 구축한 대학서열자료와 분석자료 간 매칭을 통해 총 153개 대학과 의학과이력이 매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성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오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하여 독립변수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매개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통해 자녀의 계층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²⁷⁾

구체적인 3단계 매개분석의 방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

27)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매개분석의 경우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하였지만 매개변수가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Iacobucci(2012)가 제시한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한 번 더 검증해 보았다. Iacobucci(2012)는 범주형 변수가 포함된 매개분석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매개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두 번째 단계를 일반 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분

석으로 실시한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Z_{mediation} = \frac{Z_a Z_b}{\widehat{\sigma}_{z_{ab}}} = \frac{\frac{a}{s_a} \times \frac{b}{s_b}}{\sqrt{Z_a^2 + Z_b^2 + 1}}$ 의 공

식을 통해 도출된 z 값이 양측검정으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된다. 검증결과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분석 방법>

모델 1

$$Y = \text{상수항} + c_1X_1 + \beta_1C_1 + \beta_2C_2 + \beta_3C_3 + \beta_4C_4 + \beta_5C_5 + \beta_6C_6 + \beta_7C_7 + \beta_8C_8 + e$$

모델 2

$$M = \text{상수항} + a_1X_1 + \beta_1C_1 + \beta_2C_2 + \beta_3C_3 + \beta_4C_4 + \beta_5C_5 + \beta_6C_6 + \beta_7C_7 + \beta_8C_8 + e$$

모델 3

$$Y = \text{상수항} + c'_1X_1 + \beta_1C_1 + \beta_2C_2 + \beta_3C_3 + \beta_4C_4 + \beta_5C_5 + \beta_6C_6 + \beta_7C_7 + \beta_8C_8 + b_1M_1 + e$$

Y = 자녀계층(직업·소득) X = 부모계층(직업·소득)

C₁ = 성별 C₂ = 출신 고등학교 계열

C₃ = 형제자매 수 C₄ = 한부모가구 여부

C₅ = 월평균 사교육비 C₆ = 혼자 공부하는 시간

C₇ = 자격증 개수 C₈ = 해외어학연수경험 여부

M = 교육성취(교육연수, 대학계열, 대학서열)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1982)이 제안한 Sobel test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관하여 더욱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bootstrapping 절차(Shrout & Bolger, 2002)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²⁸⁾

28) 이상균(2007)에 따르면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ab라는 매개효과 회귀계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은 충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할 경우 검증력이 감소되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type II 오류를 범하기 쉬워진다. 이에 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의 사례수와 같은 크기의 표본을 반복추출을 통하여 이들 표본에서 ab라는 매개효과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얻어내고, 얻어낸 회귀계수들의 분포에서 연구자가 정한 유의수준에 맞는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유의도를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bootstrapping 방법은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sobel test 방법을 통해 유의미하지 않았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33)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983	53.6
	여	850	46.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95	16.1
	전문대학 중퇴	81	4.4
	전문대학 졸업	644	35.1
	일반대학 중퇴	72	3.9
	일반대학 졸업	708	38.6
	대학원 석사 중퇴	6	0.3
	대학원 석사 졸업	27	1.5
한부모가구 여부	양부모가구	1597	87.1
	한부모가구	236	12.9
형제자매 수	0명	144	7.9
	1명	1178	64.3
	2명	373	20.3
	3명	97	5.3
	4명	23	1.3
	5명	14	0.8
	6명	4	0.2
해외어학연수 경험	없음	1661	90.6
	있음	172	9.4
자격증 개수	0개	990	54.0
	1개	413	22.5
	2개	211	11.5
	3개	107	5.8
	4개	54	2.9
	5개	35	1.9
	6개	11	0.6
	7개	3	0.2
	8개	5	0.3
	9개	2	0.1
	11개	2	0.1
주당 개인공부 시간	3시간 미만	943	51.4
	3~5시간	310	16.9
	5~10시간	183	10.0
	10~15시간	116	6.3
	15~20시간	87	4.7
	20~25시간	67	3.7
	25~30시간	55	3.0
	30시간 이상	72	3.9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833명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력, 한부모가구 여부, 형제자매의 수, 해외어학연수경험 여부, 자격증의 개수, 고3 시절 주당 개인공부 시간을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1833명에서 남성이 983명으로 여성 850명보다 7.2%가 많았다. 학력을 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가 295명으로 16.1%를 차지했으며, 전문대학 중퇴자가 81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644명으로 각각 4.4%와 35.1%를 차지하였다. 일반대학 중퇴자의 경우 72명이며, 일반대학 졸업자는 가장 많은 708명으로 전체에서 38.6%를 차지하였다. 대학원 석사 중퇴자는 가장 적은 6명으로 0.3%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경우 27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가구 구성을 나타내는 한부모가구 여부와 형제자매 수를 보았을 때, 양부모가구인 경우는 전체에서 1597명으로 87.1%의 비율을 보였으며, 한부모가구의 경우 236명으로 12.9%를 차지하였다. 형제자매의 수는 1명이 1178명으로 전체에서 64.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2명이 373명으로 20.3%를 차지하였다.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 144명으로 12.9%를 차지하여 3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3명 이상 부터는 점점 줄어들어 형제자매가 3명인 사람은 97명, 4명인 사람은 23명, 5명인 사람은 14명이었고,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은 형제자매의 수는 6명으로 전체 중 4명인 0.2%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해외어학연수 경험과 자격증 개수를 살펴보았을 때, 해외어학연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1661명에 비해 매우 적은 172명으로, 이는 전체에서 9.4%만이 해당된다. 자격증의 경우 획득한 자격증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적은 인원으로 나타났으며, 획득한 자격증 개수의 경우 가장 많은 사람은 총 11개로 전체에서 0.1%인 2명이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가 990명으로 전체의 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격증이 1개인 사람

은 413명으로 22.5%를 차지하였고, 2개인 사람은 211명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3개는 107명, 4개는 54명, 5개는 35명, 6개는 11명, 7개는 3명, 8개는 5명, 9개는 2명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 연구대상자의 스스로 공부 시간 또한 늘어날수록 인원은 감소되었다. 주당 3시간 미만 공부를 한 사람은 943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으며, 3~5시간 공부를 한 사람은 310명으로 16.9%의 비율을 보였다. 5~10시간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 183명으로 10%의 비율을 보였으며, 10~15시간은 116명, 15~20시간은 87명, 20~25시간은 67명, 25~30시간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공부 시간이 긴 주당 30시간 이상은 72명으로 전체에서 3.9%의 비율을 보였다.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인 계층과 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계층에 관한 변수는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지며, 직업은 직업위세점수로, 소득은 로그소득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고3 시절 월평균 사교육비 변수도 함께 확인하였다. 각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분석단계에 맞추어 기술하였고,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²⁹⁾를 확인하였다.

<표 3> 분석단계별 교육성취변수

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1단계 교육연수 (n=1833)	12년	295	16.1	14.48	1.508	-.163	-.914
	13년	81	4.4				
	14년	716	39.1				
	16년	708	38.6				
	17년	6	0.3				
	18년	27	1.5				
2단계 대학계열 (n=1358)	전문대학	644	47.4	.526	.500	-.103	-1.992
	일반대학	714	52.6				
3단계 대학서열 (n=665)	일반대학	665	100	86.20	46.685	.076	-.928

<표 3>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교육성취변수를 분석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1단계의 분석은 양적 교육성취를 의미하는 교육연수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문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 중퇴자를 의미하는 14년과 일반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는 16년의 빈도가 각각 716, 708명으로 가장 크며, 고등학교 졸업자인 12년의 경우 빈도는 295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석사 졸업자인 18년은

29) 왜도와 첨도는 일반적으로 왜도 3.0, 첨도 10을 기준으로 두 값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Kline, 2005).

27명의 빈도를 보이며, 석사 중퇴자의 경우 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 변수의 평균은 14.48년으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사이 정도의 교육연수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163과 -.914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분석은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문대학은 644명, 일반대학은 714명으로 일반대학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분석은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대학 졸업자 665명을 대상으로 분석된다. 분석자료에서의 대학서열 평균은 188개의 대학서열 중 86.2위이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076, -.928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 분석단계별 직업위세점수(SIOPS-08)

분석단계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1단계: 교육연수	부모	1673	40.988	11.302	20.03	78.16	.430	.157
	자녀	1673	42.798	11.059	20.09	72.00	.085	-.397
2단계: 대학계열	부모	1261	41.923	11.335	20.03	78.16	.431	.130
	자녀	1261	43.995	11.218	20.09	72.00	.018	-.422
3단계: 대학서열	부모	616	44.160	11.703	20.09	78.16	.442	-.093
	자녀	616	45.386	11.730	20.76	72.00	-.038	-.543

<표 4>는 분석단계별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직업위세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최하 5점에서 최고 78.16점으로 구성된 직업위세 점수에 비교해 볼 때, 모든 분석단계에서 최솟값이 20점을 넘고 최댓값이 부모는 78.16점, 자녀는 72점을 받아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분석단계별로 볼 때, 1단계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빈도가 1673이며, 평균 직업위세점수는 부모 40.988, 자녀 42.798로 자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빈도가 1261이며, 평균 직업위세점수는 부모 41.923, 자녀 43.995로 자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2단계의 분석은 고등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포함된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3단계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총 빈도가 616이며, 평균 직업위세점수는 부모 44.160, 자녀 45.386으로 역시 자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앞의 두 분석보다 더 높은 위세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직업위세점수가 더 높은 것은 ICT/IT 관련직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SIOPS-08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도와 첨도는 전 분석에서 낮게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분석단계별 로그 월평균 소득

분석단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1단계: 교육연수	부모	1634	5.364	.791	.00	7.60	-3.047	18.849
	자녀	1634	5.122	.459	.00	8.01	-2.322	29.564
2단계: 대학계열	부모	1210	5.437	.780	.00	7.50	-3.342	21.513
	자녀	1210	5.135	.399	.00	8.01	-2.591	32.316
3단계: 대학서열	부모	609	5.590	.763	.00	7.50	-3.783	26.548
	자녀	609	5.168	.447	.00	8.01	-2.735	34.402

<표 5>는 분석단계별로 로그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로그 자녀의 월평균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의 경우 직업위세점수와는 다르게 부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표준편차 또한 부모에서 높게 나타난다. 분석단계별로 볼 때, 1단계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빈도가 1634이고 로그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이 5.364이며 자녀의 로그 월평균 소득은 5.122로 부모가 더 높은 소득을 보인다. 2단계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빈도가 1210이고, 부모 5.437, 자녀 5.135로 부모가 더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외되어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빈도가 609이고, 평균 로그 소득은 부모 5.590, 자녀 5.168로 역시 부모가 더 높으며 일반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은 조금 더 높아졌다. 로그 월평균 소득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든 분석에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변수 자체의 편포가 심하여 이를 한계로 두고 분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6> 분석단계별 분석단위별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분석단계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1단계: 교육연수	직업	1673	2.334	1.703	.00	6.40	-.325	-1.341
	소득	1634	2.287	1.724	.00	6.40	-.271	-1.400
2단계: 대학계열	직업	1261	2.540	1.655	.00	6.40	-.512	-1.084
	소득	1210	2.516	1.677	.00	6.40	-.483	-1.148
3단계: 대학서열	직업	616	2.988	1.567	.00	6.40	-.884	-.308
	소득	609	2.973	1.583	.00	6.40	-.863	-.373

<표 6>은 분석단계별 직업과 소득이라는 분석단위별로 고3 시절의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낸 것이다. 빈도는 앞서의 변수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으며, 1단계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평균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는 직업분석에서는 2.334, 소득분석에서는 2.287로 나타났다. 2단계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평균 로그 사교육비가 직업분석 2.540, 소득분석 2.516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직업분석 2.988, 소득분석 2.973으로 나타나 분석단계별 분석대상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변수 또한 왜도와 첨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제3절 표본손실의 영향

연구대상에서 서술했듯이 본 연구에서 표본의 탈락률은 매우 높다. 이러한 표본의 탈락이 체계적으로 발생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고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원표본과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추정에서의 편의가 발생하여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표본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차이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와 실제적 조건들로 인하여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 개효과분석을 사용함으로써 표본의 탈락이나 표본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이의 문제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분석단계에서의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의 주요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특성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함의를 파악하여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7>은 각 분석단계별 탈락집단과 분석집단의 특성을 t 검정을 통해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분석단계에서의 탈락집단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0차 연도 조사까지의 자연탈락자와 분석조건에 맞는 표본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택적 탈락자들이 합쳐진 집단이다. 이 중 1단계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자연탈락 이외에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탈락되었다. 1 단계를 중심으로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한 것을 보면 각 변수의 집단별 차이에 있어 부모의 소득, 공부 시간, 사교육비,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직업위세점수와 성별, 형제자매 수, 한부모 가구 여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집단의 부모 직업위세가 낮고, 여성은 과표

집 되었으며, 형제자매 수가 더 많고, 한부모가구는 과소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면 연구집단의 부모 직업위세점수가 더 낮음으로써 자녀 직업위세점수에 관한 추정이 다소 작게 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원표본보다 과표집되어 직업위세의 경우는 과대추정이, 소득의 경우는 과소추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³⁰⁾ 형제자매 수가 많아진 것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한부모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형제자매의 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단계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1단계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만을 추려서 분석한 것으로 자녀의 학력이라는 양적 교육성취에 부모의 계층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계층변수들과 다른 변수들에서도 원표본과 차이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2단계에서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한 것을 보면, 예상과 같이 형제자매 수 변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계층변수의 추정에 있어 전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3단계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의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한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형제자매 수 변수까지 정적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1단계에서의 분석집단과 연구집단 간 차이는 표본 내의 일자리 유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부모의 직업위세점수와 여성의 비율, 형제자매의 수, 한부모가구의 비율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녀의 계층을 추정하는데 있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의 분석은 학력을 기준으로 원표본에서 탈락이 진행되어 연구집

30) 직업위세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남성보다 이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리를 먼저 잡을 가능성이 크며, 최은영·홍장표(2014)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직업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은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MI 가설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자녀가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은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의 계층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의 자녀만을 연구하는 것은 표본선택편의라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결국 여기서 발생한 체계적 탈락은 탈락집단과 연구집단 간 특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 차이는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의 과소표집으로 설명될 수 있기에 자녀의 계층을 추정하는데 있어 원표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연구집단의 대표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한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상기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의하여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이도록 할 것이다.

<표 7> 탈락집단과 분석집단 특성비교

변수	집단구분	1단계 교육연수 분석					2단계 대학제일 분석					3단계 대학서열 분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 SIOPS	탈락	1886	42.039	12.461	2.519	0.012	2339	41.260	12.240	-2.059	0.040	3014	40.959	11.888	-6.592	0.000
	분석	1778	41.049	11.325			1325	42.087	11.352			650	44.341	11.746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탈락	1954	5.411	0.800	1.438	0.150	2427	5.365	0.800	-3.007	0.003	3116	5.350	0.789	-7.648	0.000
	분석	1822	5.374	0.774			1349	5.444	0.763			660	5.598	0.750		
성별 (여성 비율)	탈락	1977	0.431	0.495	-2.033	0.042	2452	0.420	0.494	-4.372	0.000	3145	0.435	0.496	-3.241	0.001
	분석	1833	0.464	0.499			1358	0.494	0.500			665	0.504	0.500		
형제자매 수	탈락	1977	1.203	0.741	-4.190	0.000	2452	1.237	0.787	-1.791	0.073	3145	1.266	0.812	2.200	0.028
	분석	1833	1.310	0.829			1358	1.285	0.783			665	1.202	0.651		
한부모 가구여부 (한부모 비율)	탈락	1977	0.157	0.364	2.521	0.012	2452	0.170	0.376	6.861	0.000	3145	0.162	0.368	9.157	0.000
	분석	1833	0.129	0.335			1358	0.095	0.293			665	0.059	0.235		
혼자 공부하는 시간	탈락	1977	2.486	2.062	1.527	0.127	2452	2.343	1.980	-3.837	0.000	3145	2.265	1.923	-10.550	0.000
	분석	1833	2.386	1.974			1358	2.609	2.083			665	3.257	2.259		
로그 월평균 사교육비	탈락	1973	2.293	1.798	0.044	0.965	2448	2.167	1.797	-6.023	0.000	3141	2.148	1.762	-11.935	0.000
	분석	1833	2.291	1.722			1358	2.517	1.673			665	2.973	1.589		
고등학교 유형 (실업계 비율)	탈락	1977	0.495	0.500	-0.445	0.656	2452	0.542	0.498	7.273	0.000	3145	0.565	0.496	22.189	0.000
	분석	1833	0.502	0.500			1358	0.420	0.494			665	0.180	0.385		

제4절 가설검증

본 연구는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성취의 영향을 매개분석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교육성취란 양적 교육성취와 질적 교육성취로 나뉘지며, 양적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를, 질적 교육성취는 진학한 대학의 계열과 서열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 간 사회이동은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중심으로 분석되며, 계층은 직업위세와 소득으로 나누어져 각각 분석된다. 따라서 가설검증은 교육연수, 대학계열, 대학서열이라는 분석단계별로 직업과 소득이라는 계층이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3단계로 이루어진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1.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여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직업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표 8>은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총 1673명이며, 직업위세점수(SIOPS)로 계층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모형유의도가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것이다. 변수를 확인해 보았을 때, 부모의 직업위세는 자녀의 직업위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의 경우 여성일 때 자녀의 직업위세가 2.32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의 개인공부 시간은 1단위 증가할 때, 직업위세점수가 .418점 증가하고, 고3 시절 사교육비가 1% 증가할수록 자녀의 직업위세점수가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오히려 해외어학연수를 가면 직업위세가 2.42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의 계열은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했으며, 실업계인 사람의 경우 직업위세가 2.245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만약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면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델 2의 설명력이 35.6%임을 볼 때, 부모의 직업위세는 자녀의 교육연수 획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의 직업위세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자녀의 교육연수는 .011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교육연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한 명이 증가할수록 .129년의 교육연수가 감소하고,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교육연수가 .28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의 개인공부 시간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교육연수를 .076년 증가시키며,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수록 .143년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은 출신 고등학교 계열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1.069년의 교육연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매개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모델 3은 모델 1에 비해 2.5% 정도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매개변

수인 교육연수는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강하면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연수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자녀의 직업위세는 1.464점이 증가된다. 성별은 모델 1과 같이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직업위세가 2.1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모델 1과 같이 해외어학연수를 가면 직업위세가 2.949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비교적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수경험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춰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교육연수 변수가 함께 포함되면서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 하단에는 본 분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았을 때,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위세를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교육연수 획득을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정도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049의 총효과 중 32.7%를 차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녀의 교육연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를 sobel test와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이 검증되어 부모의 직업위세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교육연수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8> 1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N=1673)

		모델1			모델2			모델3		
		부모 SIOPS ⇨ 자녀 SIOPS			부모 SIOPS ⇨ 교육연수			부모 SIOPS, 교육연수 ⇨ 자녀 SIOPS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18.229*** (3.183)			14.101*** (.149)			18.229*** (3.183)		
통계 변수	성별 (여=1)	2.325*** (.554)	.105	1.097	.100 (.061)	.033	1.097	2.178*** (.548)	.098	1.098
	형제자매 수	-.076 (.352)	-.005	1.090	-.129*** (.037)	-.069	1.090	.113 (.347)	.008	1.097
	한부모가구 (한부모=1)	-.576 (.829)	-.016	1.086	-.280* (.112)	-.059	1.086	-.166 (.829)	-.005	1.091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2.423* (.989)	-.064	1.051	.359*** (.083)	.069	1.051	-2.949** (.988)	-.077	1.059
	자격증 개수	.350 (.183)	.045	1.055	.131*** (.022)	.123	1.055	.158 (.183)	.020	1.078
	주당 개인 공부 시간	.418* (.163)	.075	1.310	.076*** (.016)	.100	1.310	.306 (.162)	.055	1.326
	월평균 사교육비 (ln)	.430* (.171)	.066	1.232	.134*** (.020)	.152	1.232	.234 (.171)	.036	1.267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2.245*** (.636)	-.102	1.413	-1.069*** (.076)	-.356	1.413	-.679 (.656)	-.031	1.609
독립 변수	부모 SIOPS	.049 (.027)	.050	1.140	.011*** (.003)	.080	1.140	.033 (.026)	.034	1.150
매개 변수	교육연수						1.464*** (.208)	.199	1.543	
모형 요약	R ²	.062			.352			.087		
	adj. R ²	.057			.348			.082		
모형 유의도	F	12.739***			122.124***			17.440***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49	.027	1.827	.068	-.004	.101			
Direct effect of X on Y		.033	.026	1.252	.211	-.019	.085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16	.005			.008	.025			
Sobel test		.016	.005	z = 3.371	.001					

* p<.05, ** p<.01, *** p<.001

2) 소득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 검증

<표 9>는 소득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총 16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의 각 단계별로 모형유의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소득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로그로 변환한 것으로 모델 1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한 것이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은 .0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성별로 여성일 경우 12.1%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 고등학교의 계열이 실업계인 경우도 7.2%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모델의 설명력을 볼 때, 35.9%를 설명함으로써 부모의 소득 역시 부모의 직업과 같이 자녀의 교육연수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관계를 보았을 때, 우선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육연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연수는 .17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의 계열은 모델 2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며 실업계일 경우 교육연수가 1.122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3 시절의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며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수록 교육연수는 .001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 주당 개인공부 시간 또한 한 단위 증가할 때 .07년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시절의 교육환경이 교육연수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 3은 교육연수를 포함하여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연수 변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은 1%만이 증가하여 교육연수가 자녀의 소득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실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성별과 부모의 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은 .0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모델 1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여성이 13.4%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보았을 때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매우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자녀의 소득으로는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양적 교육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업위세로 측정한 직업이동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교육연수를 통한 간접적 영향은 총효과에 대비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직업은 자녀의 교육연수 획득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로그를 취한 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이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자녀의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연수 획득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될 수 없다.

<표 9> 1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 로그 소득 활용(N=1634)

		모델1			모델2			모델3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교육연수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연수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4.835*** (.080)			13.628*** (.316)			4.655*** (.150)		
통제 변수	성별 (여=1)	-.121*** (.021)	-.132	1.093	.152* (.063)	.050	1.093	-.123*** (.021)	-.134	1.097
	형제자매 수	-.001 (.013)	-.002	1.078	-.096* (.038)	-.052	1.078	.000 (.013)	.000	1.082
	한부모가구 (한부모=1)	.032 (.039)	.024	1.190	-.314** (.113)	-.069	1.190	.036 (.040)	.027	1.198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002 (.045)	.001	1.056	.305** (.089)	.059	1.056	-.002 (.045)	-.001	1.061
	자격증 개수	.003 (.007)	.010	1.066	.120*** (.022)	.110	1.066	.002 (.007)	.006	1.085
	주당 개인 공부 시간	.016* (.008)	.069	1.292	.070*** (.017)	.093	1.292	.015 (.008)	.064	1.305
	월평균 사교육비 (ln)	.004 (.008)	.015	1.327	.127*** (.021)	.144	1.327	.002 (.008)	.009	1.359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072** (.028)	-.079	1.406	-1.122*** (.078)	-.370	1.406	-.058 (.030)	-.063	1.620
독립 변수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061*** (.015)	.105	1.314	.170** (.057)	.088	1.314	.058*** (.015)	.101	1.327
매개 변수	교육연수						.013 (.010)	.044	1.569	
모형 요약	R ²	.049			.363			.050		
	adj. R ²	.043			.359			.044		
모형 유의도	F	11.064***			131.133***			10.567***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61	.015	4.179	.000	.032	.089			
Direct effect of X on Y		.058	.015	4.002	.000	.030	.087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02	.002			-.001	.007			
Sobel test		.002	.002	z = 1.187	.235					

* p<.05, ** p<.01, *** p<.001

2.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질적 교육성취는 교육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세대 간 불평등의 새로운 고리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교육팽창의 정점에 있는 고등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분석되며 두 수준으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그 중 먼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뉘지는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와 같이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여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직업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표 10>은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계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총 1261명이며 각 분석단계별 모형유의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앞서의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같이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설명력은 다소 낮아졌으며,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유의도 또한 낮아졌다. 그럼에도 출신 고등학교의 계열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실업계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직업위세가 1.741점 낮아졌다. 그 다음으로는 고3 시절 주당 개인공부 시간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직업위세에 교육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교육연수를 중

심으로 한 분석과 같이 오히려 해외어학연수를 가면 직업위세가 2.138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위세가 1.317점 높았으며, 가구의 환경을 나타내는 형제자매 수나 한부모가구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대학계열에 미치는 영향으로 앞서의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보다는 설명력이 낮았지만, 부모의 직업위세가 대학계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위세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자녀의 대학계열이 일반대학으로 갈 확률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계열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신 고등학교 계열로서 실업계일 경우 전문대학으로 갈 확률이 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고3 시절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주당 개인공부 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일반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027% 증가하였고, 개인공부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일반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제자매의 수는 증가할수록 일반대학을 졸업할 확률을 3%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대학계열을 포함하여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대학계열은 유의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대학을 졸업할 경우 직업위세를 1.8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직업위세가 1.375점 높아지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해외어학연수 경험의 경우 앞서와 같이 오히려 직업위세를 2.327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계열이라는 교육변수가 다른 교육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직업위세가 대학계열을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10>의 하단을 살펴보면,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유사하게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대학계열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우 크기는 작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의 15.2%가 대학계열을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bel test와 bootstrapping 결과를 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첫 번째 가설인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매개효과의 크기를 볼 때 계수가 매우 작으므로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대학계열을 통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매개적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10> 2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계열이 미치는 영향(N=1261)

		모델1			모델2			모델3		
		부모 SIOPS ⇨ 자녀 SIOPS			부모 SIOPS ⇨ 대학계열			부모 SIOPS, 대학계열 ⇨ 자녀 SIOPS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40.114*** (1.585)			.405*** (.064)			39.385*** (1.655)		
통제 변수	성별 (여=1)	1.317* (.653)	.059	1.095	-.032 (.025)	-.032	1.095	1.375* (.656)	.061	1.096
	형제자매 수	.107 (.420)	.007	1.093	-.034* (.017)	-.051	1.093	.168 (.421)	.011	1.097
	한부모가구 (한부모=1)	-.656 (1.164)	-.016	1.080	-.041 (.049)	-.023	1.080	-.582 (1.166)	-.015	1.081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2.138* (1.040)	-.060	1.048	.105** (.034)	.066	1.048	-2.327* (1.040)	-.065	1.054
	자격증 개수	.121 (.199)	.016	1.054	.032*** (.009)	.095	1.054	.064 (.199)	.009	1.066
	주당 개인 공부 시간	.379* (.177)	.071	1.291	.020** (.007)	.084	1.291	.343 (.178)	.064	1.301
	월평균 사교육비 (ln)	.427* (.206)	.063	1.200	.027*** (.008)	.089	1.200	.379 (.207)	.056	1.211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1.741* (.745)	-.077	1.376	-.367*** (.031)	-.363	1.376	-1.081 (.785)	-.048	1.556
독립 변수	부모 SIOPS	.046 (.031)	.046	1.121	.004*** (.001)	.092	1.121	.038 (.032)	.039	1.133
매개 변수	대학계열(일반대=1)						1.800* (.733)	.080	1.370	
모형 요약	R ²	.038			.270			.043		
	adj. R ²	.031			.265			.035		
모형 유의도	F	5.642***			66.414***			5.760***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46	.031	1.451	.1471	-.015	.107			
Direct effect of X on Y		.038	.031	1.215	.2248	-.023	.099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072	.0036			.0020	.0166			
Sobel test		.007	.003	2.093	.036					

* p<.05, ** p<.01, *** p<.001

2) 소득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 검증

<표 11>은 1단계의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같이 소득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총 12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의 각 단계별로 모형유의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로그로 변환한 <표 11>을 보았을 때, 모델 1의 경우 직업이동을 확인했을 때와는 반대로 교육연수에서 대학계열로 분석되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모의 로그 월평균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정적이거나 약간 감소하여 1%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이 .0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은 더욱 커져서 여성일 경우 12.3%의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가 실업계일 경우 소득이 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3 시절 주당 공부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소득이 2.3% 증가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모델 2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으로 설명력은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보다는 낮지만 26.5%의 큰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대학계열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보였다. 성별과 가구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교육관련 변수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출신 고등학교 계열의 경우 실업계를 나온 학생은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37% 감소되었다.

모델 3은 대학계열을 포함하여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모델 1과 비교할 때 설명력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이 .044% 증가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계열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교육변수

중 고3 시절 주당 개인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올 경우 소득이 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12.3%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대학계열이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만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은 대학계열이라는 질적 교육성취를 통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계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업위세로 측정한 직업이동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대학계열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작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력은 많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직업은 자녀의 대학계열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소득이동의 경우 소득의 직접효과만이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대학계열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계열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11> 2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대학계열이 미치는 영향, 로그 소득 활용(N=1210)

		모델1			모델2			모델3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대학계열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대학계열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4.949*** (.072)			.300* (.130)			4.951*** (.073)		
통계 변수	성별 (여=1)	-.123*** (.022)	-.154	1.087	-.009 (.026)	-.009	1.087	-.123*** (.022)	-.154	1.087
	형제자매 수	-.001 (.015)	-.002	1.077	-.029 (.017)	-.045	1.077	-.001 (.015)	-.002	1.079
	한부모가구 (한부모=1)	.001 (.044)	.001	1.155	-.054 (.050)	-.032	1.155	.001 (.044)	.001	1.156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014 (.048)	.011	1.051	.082* (.036)	.053	1.051	.014 (.047)	.011	1.055
	자격증 개수	-.002 (.007)	-.008	1.068	.028** (.009)	.082	1.068	-.002 (.007)	-.007	1.078
	주당 개인 공부 시간	.023*** (.007)	.122	1.284	.022*** (.007)	.092	1.284	.023*** (.007)	.122	1.295
	월평균 사교육비 (ln)	-.008 (.008)	-.035	1.286	.028** (.009)	.093	1.286	-.008 (.008)	-.035	1.298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073** (.026)	-.090	1.371	-.370*** (.032)	-.364	1.371	-.076** (.028)	-.093	1.554
독립 변수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044** (.013)	.086	1.283	.050* (.024)	.077	1.283	.044** (.014)	.086	1.292
매개 변수	대학계열 (일반대=1)							-.006 (.026)	-.007	1.372
모형 요약	R ²	.063			.271			.063		
	adj. R ²	.056			.265			.055		
모형 유의도	F	9.793***			59.044***			8.951***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44	.013		3.306	.001		.019		.069
Direct effect of X on Y		.044	.014		3.277	.001		.017		.071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003	.0015					-.0042		.0022
Sobel test		-.0003	.0013		-.229	.819				

* p<.05, ** p<.01, *** p<.001

3.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뉘지는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대학서열을 통하여 질적 교육성취의 차이가 세대 간 사회이동을 매개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대학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를 토대로 구성된 대학서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서열이 이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와 같이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여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서열 변수의 경우대학의 순위가 최상위인 1위부터 최하위까지로 구성되었으므로 해석에 있어 서열이 높다는 것은 더욱 상위권 대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 직업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표 12>는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서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총 616명이며 각 분석단계별 모형유의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앞서의 교육연수나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 같이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모델 1의 설명력은 1.4%로 부모의 직업위세는 자녀의 직업위세를 거의 설명할 수 없었으며,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대학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부모의 직업위세는 자녀의 대학서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신 고등학교 계열이나 고3 시절의 공부 시간 및 사교육비를 나타내는 교육관련 변수들은 대학서열에 유의미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일반고등 학교를 나온 사람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대학서열이 18.37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3 시절 사교육비는 1% 증가할수록 대학서열이 3.0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고3 시절 주당 개인공부 시간으로 공부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대학서열은 5.0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대학서열을 포함하여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57%나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작은 2.2%로 자녀의 직업위세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역시 모델 1과 같이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유일하게 대학서열 변수만은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서열의 경우 상위권 대학으로 한 단위 올라갈수록 자녀의 직업위세는 .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대학서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자녀의 직업위세에는 자녀의 대학서열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변수 중 해외어학연수 경험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대학서열이 13.3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건발생의 시점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다.

<표 12> 3단계: 세대 간 직업계층이동에 대학서열이 미치는 영향(N=616)

		모델1			모델2			모델3		
		부모 SIOPS ⇨ 자녀 SIOPS			부모 SIOPS ⇨ 대학서열			부모 SIOPS, 대학서열 ⇨ 자녀 SIOPS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38.956*** (.2538)			112.150*** (9.009)			41.952*** (2.728)		
통제 변수	성별 (여=1)	1.533 (1.003)	.065	1.103	-.175 (3.677)	-.002	1.103	1.528 (.998)	.065	1.103
	형제자매 수	.917 (.748)	.049	1.109	5.052 (2.956)	.068	1.109	1.052 (.745)	.056	1.115
	한부모가구 (한부모=1)	-2.531 (2.172)	-.049	1.076	8.979 (7.409)	.044	1.076	-2.291 (2.135)	-.045	1.079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2.136 (1.411)	-.066	1.070	-13.314** (4.739)	-.103	1.070	-2.492 (1.428)	-.077	1.083
	자격증 개수	.120 (.298)	.016	1.056	.452 (1.095)	.015	1.056	.132 (.298)	.018	1.056
	주당 개인 공부 시간	.292 (.234)	.056	1.148	-5.050*** (.819)	-.244	1.148	.157 (.236)	.030	1.221
	월평균 사교육비 (ln)	.264 (.330)	.035	1.147	-3.040* (1.246)	-.102	1.147	.183 (.332)	.024	1.160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345 (1.330)	-.011	1.175	18.376*** (4.791)	.152	1.175	.146 (1.335)	.005	1.203
독립 변수	부모 SIOPS	.073 (.046)	.072	1.124	-.204 (.151)	-.051	1.124	.067 (.045)	.067	1.127
매개 변수	대학서열							-.027* (.011)	-.106	1.213
모형 요약	R ²	.028			.176			.038		
	adj. R ²	.014			.163			.022		
모형 유의도	F	1.925*			14.606***			2.253*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73	.046	1.577	.115	-.018		.163		
Direct effect of X on Y		.067	.045	1.486	.138	-.022		.156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05	.005			-.001		.020		
Sobel test		.005	.005	z = 1.104	.270					

* p<.05, ** p<.01, *** p<.001

2) 소득이동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매개효과 검증

<표 13>은 교육연수나 대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 같이 소득이동에 미치는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총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의 각 단계별로 모형유의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로그로 변환한 <표 13>을 보았을 때, 로그로 변환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1의 경우 직업이동과는 달리 교육연수나 대학계열로 분석되었을 때보다 설명력이 7.4%로 점점 증가하였고,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부모의 소득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고 1%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이 .0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은 더욱 커져서 여성일 경우 16.7%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도 영향이 더욱 커져 실업계일 경우 소득이 1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 주당 공부 시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한 단위 증가할수록 소득이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의 경우 설명력은 17.6%이며, 전반적으로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대학서열에 미치는 영향과 흡사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은 1% 증가할 때 자녀의 대학서열을 .065위씩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18.306위가 낮은 대학서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 사교육비는 1% 증가함에 따라 .028위씩 대학서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개인공부 시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한 단위 증가할 때 대학서열을 5.309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대학서열을 포함하여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설명력은 8.5%로 모델 1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여기서도 성별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일 경우 16.6%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변수들을 보았을 때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소득이 1%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은 .0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 또한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서열이 1단위 높아지면 자녀의 소득 또한 0.1%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절 개인공부 시간 또한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2.4%의 자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대학서열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 중 대학서열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비율은 17.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유의미성에 관해서는 sobel test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bootstrapping의 검증력이 더 뛰어나기에 bootstrapping에 따라 간접효과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³²⁾ 하지만 매개효과의 크기를 볼 때 계수가 매우 작으므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을 통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매개적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서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업위세로 측정한 직업이동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직접적·간접적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학서열만이 자녀의 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직업은 자녀의 대학서열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소득이동의 경우 소득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였고 간접효과 또한 유

32) 매개효과분석에서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alpha\beta$ 의 분포가 정규성을 갖기 보다는 비대칭적인 분포를 갖기 때문에 sobel test는 검증력이 감소될 수 있다. bootstrapping 방법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에서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얻어낸 후 유의수준에 맞추어 신뢰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나다(이상균,2007).

의미하게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총효과의 17.4%로 나타나 비교적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가 작아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13> 3단계: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에 대학서열이 미치는 영향, 로그 소득 활용(N=609)

		모델1			모델2			모델3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 대학서열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대학서열 ⇒ 로그 자녀 월평균 소득		
		B(SE)	β	VIF	B(SE)	β	VIF	B(SE)	β	VIF
상수		4.928*** (.106)			143.511*** (14.332)			5.098*** (.124)		
통제 변수	성별 (여=1)	-.167*** (.033)	-.187	1.104	.359 (3.635)	.004	1.104	-.166*** (.033)	-.186	1.104
	형제자매 수	-.001 (.031)	-.001	1.093	2.553 (2.931)	.035	1.093	.002 (.031)	.003	1.094
	한부모가구 (한부모=1)	.019 (.065)	.010	1.107	2.573 (7.222)	.013	1.107	.022 (.067)	.011	1.108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032 (.068)	.026	1.071	-10.637* (4.597)	-.083	1.071	.020 (.066)	.016	1.080
	자격증 개수	-.012 (.011)	-.042	1.064	-.259 (1.080)	-.009	1.064	-.012 (.011)	-.043	1.064
	주당 개인 공부 시간	.030*** (.009)	.156	1.128	-5.309*** (.785)	-.262	1.128	.024** (.009)	.123	1.213
	월평균 사교육비 (ln)	-.001 (.011)	-.002	1.201	-2.876* (1.262)	-.098	1.201	-.004 (.012)	-.015	1.213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104* (.049)	-.088	1.162	18.306*** (4.904)	.149	1.162	-.083 (.046)	-.070	1.189	
독립 변수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046* (.019)	.078	1.222	-6.528* (2.511)	-.107	1.222	.038* (.019)	.065	1.236
매개 변수	대학서열							-.001** (.000)	-.123	1.232
모형 요약	R ²	.088			.189			.100		
	adj. R ²	.074			.176			.085		
모형 유의도	F	8.022***			15.687***			8.322***		
매개효과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of X on Y		.046	.019		2.433	.015		.009		.083
Direct effect of X on Y		.038	.019		2.059	.040		.002		.074
Indirect effect of X on Y (Bootstrapping)		.008	.005					.001		.020
Sobel test		.008	.004		z = 1.786	.074				

* p<.05, ** p<.01, *** p<.001

4.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양적·질적 영향 검증

지금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적 교육성취와 질적 교육성취의 매개효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주류를 이루었던 교육의 양적인 측면이 갖는 매개효과가 교육팽창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의 새로운 징검다리로 예상되었던 교육의 질적 측면을 통해서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표본의 탈락이 발생하였고, 학력 단계별로 분석대상이 좁혀지면서 더 많은 표본의 탈락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시키는 큰 한계가 되었지만 매개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양적·질적 영향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가능한 모든 대상³³⁾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추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앞선 연구결과에 추가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분석은 세대 간 직업이동을 중심으로 보며, 두 번째 분석은 세대 간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본다. 두 분석 모두 자녀의 직업과 소득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부모의 직업과 소득 및 기존과 같은 통제변수로 추정하는 1단계 분석을 시행한 후 교육변수의 투입까지 이루어진 2단계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의 교육변수는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학서열에 따라 최상위대학, 상위대학, 중위대학, 하위대학이라는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하고,³⁴⁾ 여기에 전문대학 졸업과 고등

33) 연구대상은 현재 표본에서 분석이 가능한 1833명 중 대학서열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49명을 제외한 1784명이며 직업이동분석에는 1626명, 소득이동분석에는 15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4) 최상위대학은 대학서열 상위 10%(1~18위), 상위대학은 상위 10~30%(19~56위), 중위대학은 상위 30~70%(57~130위), 하위대학은 하위 30%(131~187위)로 구성하였다.

학교 졸업 집단을 포함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우선 세대 간 직업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볼 때, 교육변수를 제외한 기존의 부모 직업위세변수와 다른 통제변수로 자녀의 직업위세를 추정한 모델 1과 교육변수를 포함한 모델 2 모두 모형유의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경우 앞서 분석하였던 1단계 교육연수분석의 모델 1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른 점은 부모의 직업위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직업위세점수가 1점 올라가면 자녀의 직업위세점수가 .054점 상승시킨다는 것을 볼 때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모델 1에서 교육변수를 추가한 모델 2의 결과 또한 1단계 교육연수분석과 매우 유사하며, 교육변수가 추가되면서 부모의 직업위세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모델 2에서 교육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통합한 교육더미변수들을 볼 때 전문대 졸업을 기준으로 고졸과 중위권 대학 및 최상위권 대학 졸업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1단계 교육연수분석결과와 같이 직업이동은 교육연수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졸이 전문대 졸업 집단보다 직업위세점수가 2.717점 낮으며, 이에 비해 중위권 대학 집단은 2.536점 높고, 최상위권 대학 집단은 4.722점이 높았다. 이를 볼 때, <표 14>에서의 결과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만이 세대 간 직업이동의 매개적 요소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매개적 요소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집단 중 중위권 대학 졸업 집단보다 최상위권 졸업 집단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계수의 차이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앞선 3단계 대학서열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매개적 효과가 아니라 대학서열 자체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개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그 가

능성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볼 때 직업이동과 마찬가지로 두 모델 다 모형유의도가 적합하였다. 또한 모델 1의 결과도 직업이동분석과 같이 1단계 교육연수분석의 결과와 매우 흡사하여 유의미한 변수와 그 계수의 방향과 크기도 비슷하다. 하지만 교육변수들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1단계 교육연수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출신고교 계열 변수가 여전히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자녀의 소득을 6.9%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변수들을 보았을 때, 최상위 대학을 졸업한 집단 이외에 고졸 혹은 하위서열의 대학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최상위 대학을 졸업한 집단은 전문대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소득이 1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앞선 분석들과 같이 세대 간 소득이동에 있어서는 교육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더욱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측면의 매개적 영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집단이 최상위 서열의 대학을 나온 집단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본 추가 분석은 표본 탈락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분석 가능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교육변수의 투입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매개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세대 간 직업이동에 있어 교육은 앞선 분석들과 같이 양적 측면에서 매개적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크며, 불확실한 가능성이긴 하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매개적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세대 간 소득이동에 있어서는 앞선 분석들과 같이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매개적 효과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최상위 서열의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매개적 효과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표 14>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양적·질적 영향 (N=1784)

		직업이동분석 (N=1626)				소득이동분석 (N=1590)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38.410*** (1.370)		38.885*** (1.405)		4.857*** (.092)		4.893*** (.094)	
독립 변수	부모 SIOPS	.054* (.025)	.055	.041 (.025)	.042				
	로그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056** (.016)	.098	.051** (.016)	.090
통제 변수	성별 (여=1)	2.438*** (.560)	.110	2.365*** (.557)	.107	-.125*** (.023)	-.137	-.123*** (.024)	-.135
	형제자매 수	.010 (.349)	.001	.179 (.346)	.013	-.002 (.014)	-.004	-.002 (.014)	-.003
	한부모가구 (한부모=1)	-.495 (.876)	-.014	.047 (.870)	.001	.044 (.036)	.032	.046 (.036)	.034
	해외어학연수경험 (유=1)	-2.225* (.947)	-.058	-2.773** (.945)	-.072	.003 (.039)	.002	-.005 (.039)	-.003
	자격증 개수	.369 (.197)	.046	.204 (.198)	.026	.001 (.008)	.004	.002 (.008)	.005
	주당 개인 공부 시간	.421** (.155)	.075	.294 (.157)	.052	.016* (.006)	.069	.012 (.006)	.054
	월평균 사교육비 (ln)	.396* (.174)	.061	.287 (.174)	.044	.007 (.007)	.027	.007 (.008)	.025
	출신 고교계열 (1=실업계)	-2.178** (.635)	-.098	-1.069 (.669)	-.048	-.073** (.027)	-.080	-.069* (.028)	-.076
교육 변수 (ref. 전문 대졸)	고졸			-2.717*** (.691)	-.107			-.018 (.029)	-.017
	하위대학졸			-.693 (1.073)	-.017			-.071 (.046)	-.041
	중위대학졸			2.536** (.809)	.091			-.002 (.034)	-.002
	상위대학졸			1.445 (1.144)	.035			.010 (.048)	.006
	최상위대학졸			4.722** (1.719)	.071			.172* (.072)	.064
모형 요약	R ²	.062	.086		.050		.056		
	adj. R ²	.057	.078		.045		.048		
모형 유의도	F	11.898***		10.833***		9.273***		6.679***	

* p<.05, ** p<.01, *** p<.001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함의

1. 결론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일정 교육단계 수준에서의 참여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교육팽창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편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별적 교육성취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원인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교육연수와 같은 양적 교육성취 중심에서 대학서열과 같은 질적 교육성취의 차이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팽창의 정점에 있는 한국에서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고3이었던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계층이 2013년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조사대상자들인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동안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성취가 매개하는 바를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성취는 기존의 교육격차를 대표하였던 양적 교육성취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질적 교육성취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양적

교육성취와 질적 교육성취가 각각 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양적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를, 질적 교육성취는 대학계열과 대학서열로 구분하였고,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한다는 첫 번째 가설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총효과의 32.7%를 차지하여 직업계층이동에 있어 양적 교육성취인 교육연수의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계층이동에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한다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교육연수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으로 편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에 로그를 취하여 확인한 분석결과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자녀의 교육연수를 통한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연수를 통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설의 검증을 통해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양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직업계층이동의 측면에서 교육연수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이동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교육팽창 이후 직업이동의 측면에서만 양적인 교육성취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매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대학계열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보다는 총효과에 대비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대학계열의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직업위세는 자녀의 대학계열을 통해 자녀의 직업위세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으므로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네 번째 가설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부모의 소득의 직접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대학계열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세대 간 소득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를 예측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직업이동은 미약하지만 대학계열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 소득은 그렇지 못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대학계열의 매개효과는 계층을 나타내는 두 요인 중 직업이동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서열이 세대 간 사회이동을 매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계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다섯 번째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직업계층이동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서열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대학서열의 효과만이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대학서열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여섯 번째 가설은 부모의 소득이 대학서열을 통해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작

지만 총효과 대비 17.4%의 간접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작지 않은 매개효과를 보였고 자녀 소득에 미치는 부모 소득의 직접적 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서열을 중심으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마지막 단계의 가설검증을 통하여 부모의 직업은 대학서열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모의 소득은 대학서열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계층을 나타내는 두 요인 중 소득에서만 세대 간 사회이동에 질적 교육성취의 매개효과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계층적 측면에서 바라보아 직업과 소득을 중심으로 논할 경우, 부모의 직업은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계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서열의 경우 전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소득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와 질적 교육성취 중 하나인 대학계열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서열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이는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매개효과가 직업이동에서 소득이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 간 직업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연수에는 영향을 미치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계열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말고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 간 소득의 차이는 자녀의 교육연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나, 고등교육에서도 일반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내 서열의 차이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성취에 있어서 양적인 차이에는 부모의 직업이

중요하지만,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에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의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들의 절대적인 크기를 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일지라도 상당히 작은 크기를 보여 준다. 이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매개적 효과를 말하고자함에 있어 유의미성과는 달리 영향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으로 나누어 시행한 추가 분석의 결과를 보게 되면 비록 작은 크기의 교육 매개효과일지라도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 준다. 특히 세대 간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분석은 최상위 서열의 대학 졸업자 집단이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이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던 앞선 분석의 결과를 강건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직업이동과 소득이동 모두 연구대상의 노동시장 초기 성과만을 갖고 분석한 것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이는 시간이 더 지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공고히 된 시기의 연구대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명확한 교육의 매개적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³⁵⁾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팽창이 계속되어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한다 하여도 부모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없앨 수 있으나,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이는 Lucas(2001)의 EMI 가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35) 특히 직업이동의 경우 그 직업과 직업 내에서의 역할을 토대로 평가를 하는 직업위세를 사용하여 초기 노동시장에서는 직업위세가 더욱 낮게 산출되고 직업 간 차이가 줄어든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여성의 직업위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해외어학연수로 인해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직업위세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짐작할 수 있다.

부모 세대의 불평등은 어떠한 교육의 형태로든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Thurow(1972)가 일자리 경쟁이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가 필수가 되며 지위집단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Collins(1979)의 지위경쟁이론에서 지위집단 간 경제적·문화적 투자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통합 및 사회 전체의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통해 자녀의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교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의 재생산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재생산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아도 자녀의 양적·질적 교육성취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공부 시간이나 사교육비와 같은 교육관련 변수들이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이미 부모의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결국 이러한 변수들 안에 부모의 계층의 영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 교육체제의 과도한 사부담률과 학교의 빈약한 교육적 자산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효과적 대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적 개입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며 개인이 지출하는 교육의 사부담을 줄이는 것이다(김용일, 2007).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육성취가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김희삼(2015)과 송경원(2001)에 따르면 한국에서 나타나는 재생산의 문제는 단지 교육만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오히려 학벌·학력별 임금격차와 사

회적 지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즉,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교육성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장 내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레 교육성취가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논의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수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별기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정우현, 1983). 이는 단지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수능 혹은 그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질적 차이와 같은 교육성취에만 맞춰 계층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능이나 특성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발현된 것들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선별기준을 만드는 것으로써 현재 교육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계층 불평등 현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을 위해 사회복지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공보육과 공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적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정의 영향을 감소시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고 평등하면서도 양질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9).

다음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세대 내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수준으로의 인상 또한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지출을 능가하는 임금선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교육성취로 인한 차이를 인정하지만 삶에 있어 높은 교육적 성취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교육적 성취가 미치는 임금격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수준을 벗어나게 만들어 경쟁적인 교육열을 낮추는 방법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분배 구조의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1차 분배가 불평등하더라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교육성취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과할 경우 인간의 발전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사회통합을 제고시킨다. 또한 실업 및 산재와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계층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시키게 되므로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매개함으로써 지속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불평등의 추이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의 확대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자체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교육팽창 이후 한국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매개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교육팽창이 정점인 세대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다. 이는 세대 간 사회이동을 분석하면서 최근 세대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행히 최근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교육팽창을 직접 나타내는 세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로, 계층이동을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계층이동과 그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명 직업과 소득은 서로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직업의 사회적 측면과 소득의 경제적 측면을 나누어 봄으로써 교육의 매개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매우 세밀하게 반영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자의적이거나 대학의 계열만을 보거나 대입을 얼마나 준비하였는지를 반영하는 수능점수만을 보아 측정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대학·학과별 수능점수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대학서열을 구성하고 이를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질적 교육성취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이점을 가진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 중 가장 큰 것은 자료의 한계이다. 먼저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고3 시절부터 조사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초기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상태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이라는 특성을 가진 청년기 중 일자리 탐색시기에 있는 2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성취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변금선, 2013). 또한 조사대상자의 교육환경과 가정환경이 고3 때부터 조사되어 어린 시절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모습만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연구 대상자는 전부 고3이라는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되어 나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자료의 한계에 포함된다.

다른 한계로는 분석시점의 문제가 있다. 교육팽창 이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특성의 변화를 더욱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자료의 한계가 근본 원인이지만 단일 시점만을 측정한 것은 현재 상황만을 보여줌으로써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여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 시점에만 추출한 변수의 경우 당시의 상황만을 반영하게 되어 안정적이지 못한 값을 대표함으로써 추

정이 과대평가 되거나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패널자료의 특성 또한 한계가 될 수 있다. 패널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해가는 자료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표본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표본손실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하여 추정에 편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기보다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변수 간 관련성을 정확히 추정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매개분석은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정확히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우선 세대 간 사회이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엄밀히 세대 간 측정의 시기를 같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소득의 경우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청년이 아닌 장년의 시점이 더 적합하지만 두 세대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교육적 특성을 포함할 경우에는 더욱 더 자료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현재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중3 패널이나 한국교육중단연구의 중학생 자료 등은 아직 분석하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 상태로 계층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다. 하지만 많은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발달과 가정 배경을 조사하는 자료가 생성된다면 이 자료의 연구적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

론을 활용한다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주당 개인공부 시간이나 사교육비, 출신 고등학교 계열 등은 교육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방정식과 같은 방법의 활용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대입동향을 볼 때, 수능을 통한 입학보다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수시의 비율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수능 중심이었던 대학서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입시환경에 맞는 대학서열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통해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계속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상석(2008). 대학서열체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욱·이병희·장수명(2010).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위원회·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1-35.
- 강신욱(2011).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Issue & Focus, 93, 1-8.
- 권애연(2004). 한국교육경쟁의 설명논리와 개선논리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기현·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29(5), 119-151.
- 김봉근·석재은·현은주(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35(2), 25-41.
- 김성태·전병준·임병임(2013). 한국교육고용패널로 본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6(2), 1-28.
- 김수혜·김경근(2010). 세대 간 사회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제4개정판. 파주: 교육과학사.
- _____ (2015). 「교육사회학」. 제5개정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안나(2003).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13(3), 89-108.
- 김영화(1997).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연구의 발전 동향. 교육사회학연구, 7(3), 257-272.
- _____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

- 육학연구, 37(1), p.155-172.
-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 김영철·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RR 2012-12.
- 김월화·유홍준(2013). 한국의 직업위세 변화. 181-193. 2013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김위정·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정래(2004). 평등 이념과 그 적용 원리(I): 교육기회균등의 원리. 한국교육, 31(1), 3-19.
- 김진영(2006). 수학능력 시험 실시 10년간 대학의 서열 변화. 공공경제, 11(1), 121-153.
- _____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13(3), 1-72.
- 김채영(1992). 사회불평등구조 재생산하는 학교교육. 중등우리교육, 23, 103-108.
- 김채윤(1995). 「사회계층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천기(2013).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제4개정판. 서울: 학지사.
- 김해동(2002). 청년층의 직업선택과 세대간 직업이동. 직업능력개발연구, 5(2), 121-146.
- 김홍균·문혜영(2007).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공공경제, 12(1), 161-178.
- 김홍균·장지혜·김태영(2013). 대입시험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시험성적-임금 중단면도 추정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19(3), 81-102.

- 김희삼·이삼호(2007).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7-08.
- 김희삼(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63-193.
- _____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54, 1-8.
- 남춘호(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4(2), 5-43.
- 박거용(2004).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67, 22-43.
- 박경호·박지은(2005).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서열의 고착화와 변동성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8(2), 30-43.
- 박병영(2008).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1943-195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18.
- _____ (2009).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 1956-196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20.
- _____ (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I):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20.
- _____ (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17.
- 박창남·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환보·김성식(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_____ · _____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변금선(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p.345-373.
- 변수용·김경근(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73-102.
- 석상훈(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25-44.
- 성대제·강대중·강이철·곽덕주·김계현(2012). 「최신 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송경원(2001). 한국의 계급구조와 교육체계. 진보평론, 10, 31-51.
- 신광영(1995). 한국의 교육과 계급재생산. 1995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학회대회 발표문 요약집, 69-69.
- _____(2001). 사회이동과 사회이동 연구. 한국사회학, 35(5), 233-239.
- 안중범·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119-142.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보고 RR 2007-09.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 오호영·김승보·정재호(2006). 대학서열화와 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 06-18-02.
- 오호영(2007). 대학서열의 구조변화 분석: 학과선택시 학교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4(1), 181-201.

- _____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87-118.
- 유한구(2007).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The HRD Review, 10(2), 62-73.
- 유홍준·김월화(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유홍준·신일철·정태인(2014). 문화합의이론을 이용한 직업위세 척도의 비교. 한국사회학, 15(1), 201-232.
- 이건만(2009). 「교육과 사회사상의 변천」. 서울: 월미사.
- _____ (2011). 「교육사회학」. 파주: 양서원.
- _____ (2012). 「교육과 지성: 시대정신과 사회변동」. 서울: 집문당.
- 이상균(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 19-36.
- 이상은(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자형(2013). 비인지적 능력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년취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3(2), 173-206.
- 이자형·이기혜(2011).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비인지적 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27-54.
- 이주호·정혁·홍성창(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 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46호, 1-8.
- 이해성(2012). 「교육사회학 이론입문」. 서울: 문음사.
- 이혜영·박인중·성기선·한만길(1998). 학교교육의 사회적 지위 획득 효과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2), 33-56.
- 이혜영(2006).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06.

- 이훈병·황성원(2014).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사회」. 서울: 창지사.
- 임창규(2008). 세대 간 직업계층 상속성과 직업계층 안정성 관계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7-154.
-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장상수·손병선(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33(2), 75-107.
- 장홍근(2008). 해외연구동향: 직업위세 연구동향. 국제노동브리프, 6(4), 119-124.
- 전제아(2001).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 교육문제연구, 15, 113-133.
- 정우현. 1983. 학력사회와 교육. 사학, 28, 14-19.
- 정진곤(1986). 기능주의 교육 이론과 재생산 교육 이론: 실증적 증거와 그 비판. 한국교육학회 1986년 학술대회논문집, 1-32.
- 정진상(2010). 대학서열체제와 그 해소방안. 역사비평, 92, 133-157.
- 조은(2000). 가족사를 통해 본 사회 구조 변동과 계급 이동. 사회와 역사, 58, 107-158.
- 주휘정(2012). 신규 대졸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603-626.
- 차종천(1998). 직업위세와 계층구조. 한국사회학, 32(겨울), 737-756.
- _____ (2002).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추세:1990-2000. 한국사회학, 36(2), 1-22.
- 최은영·홍장표(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 최지은·홍기석(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 최태룡(2001). 직업 위신의 변화. *한국사회학비평*, 1, 67-100.
- _____(2009). 직업 위세의 평가. *지역사회학*, 10(2), 137-161.
- 최필선·민인식(2013).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3(1), 139-162.
- 통계청(2011). 2010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
- 한대동(1997). 부모학력, 지능, 고교교육이 최종학력 및 사회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7, 1-27.
- 한상진(1984).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중희(2004).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및 시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두승·구해근(2001). 「사회계층·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 황덕순(2000).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1-34.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Alon, S. (2009). The evolution of class inequality in higher education competition, exclusion, and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5), 731-75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ack, D. A., & Smith, J. A. (2004). How robust is the evidence on the effects of college quality? Evidence

- from matching. *Journal of Econometrics*, 121(1), 99–124.
- _____ & _____ (2006). Estimating the returns to college quality with multiple proxies for qua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701–728.
- Blanden, J., Gregg, P., & Machin, S. (2005).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liver, V. (2011). Expansion, differentiation, and the persistence of social class inequalities in British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61(3), 229–242.
- Borgen, N. T. (2015). Changes in the Economic Returns to Attending Prestigious Institutions in Norway. *European Societies*, 17(2), 219–241.
- Borgen, N. T. (2015). College quality and the positive selection hypothesis: The ‘second filter’ on family background in high-paid job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9, 32–47.
-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J. (2004). *The social role of the contemporary university: Contradictions, boundaries and change, in Ten Years On: Changing higher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Center for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22-26.

- Brewer, D. J., Eide, E. R., & Ehrenberg, R. G. (1999). Does It Pay to Attend an Elite Private College? Cross-Cohort Evidence on the Effects of College Type on Earning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1), 104-123.
- Clark, B. R. (1962). 「Educating the expert society」. San Francisco: Chandler Pub. Co.
- Collins, R. (1979). 「학력주의사회」. 정우현 역. 서울: 배영사.
- Dale, S. B., & Krueger, A. B. (1999). Estimating the Payoff to Attending a More Selective College: an Application of Selection on Observables and Unobservables. NBER Working Paper, (w7322).
- Davies, S., & Guppy, N. (1997). Fields of study, college selectivity, and student inequal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forces*, 75(4), 1417-1438.
- Downey, D. B. (1995). When bigger is not better: Family size, parental resources,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5), 746-761.
- Erikson, R., & Goldthorpe, J. H. (2010). Has social mobility in Britain decreased? Reconciling divergent findings on income and class mo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2), 211-230.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 Featherman, D. L., & Hauser, R. M. (1978).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 Ganzeboom, H. B., & Treiman, D. J. (2010). Occupational status measures for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with a discussion of the new classification. In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Lisbon.
- Giddens, A. (2011). 「현대 사회학」. 제6개정판. 김미숙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 Gujarati, D. N., & Porter, D. C. (2010). Essentials of econometrics(4th ed.). New York: McGraw-Hill.
- Hussain, I., McNally, S., & Telhaj, S. (2009). University quality and graduate wages in the UK. IZA discussion papers. (No. 4043).
- Iacobucci, D. (2012). Mediation analysis and categorical variables: The final frontie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2, 582-594.
- Iannelli, C., and Pateron, L., (2005). Does Education Promote Social Mobility?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Scotland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Briefing No.35, June 2005.
- Jacob, M., Klein, M., & Iannelli, C. (2015). The Impact of Social Origin on Graduates' Early Occupational Destinations—An Anglo-German Comparis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13.
- Karabel, J., & Halsey, A. H. (ed). (1977). 「교육과 사회구조」. 강순원 역. 서울: 미래사.
- Karabel, J., & McClelland, K. (1987). Occupational Advantage and the Impact of College Rank on Labor Market Outcomes. *Sociological Inquiry*, 57(4), 323-34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이현숙.김수진.전수현 공역 (2010). 학지사.
- Lindley, J., & Machin, S. (2012). The Quest for More and More Education: Implications for Social Mobility*. Fiscal Studies, 33(2), 265–286.
- Long, M. C. (2008). College quality and early adult outcom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5), 588–602.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¹.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 Osborn, A. F., & Morris, T. C. (1979). The rationale for a composite index of social class and its evalu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9–60.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New York: Praeger.
- Raftery, A. E., &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Shavit, Y., & Blossfeld, H. P. (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Westview Press.
- Shavit, Y., Arum, R., & Gamoran, A. (2007).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 Solga, H., & Konietzka, D. (1999). Occupational match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Theoretical insights and empirical observations taken from a German–German comparis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5, 25–47.
- Sorokin, P. A. (1927). 「Social Mobility」. New York & London: Harper & Brothers.
- Stiglitz, J. E. (1975). The theory of "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
- Strike, K. A., Haller, E. J., Soltis, J. F. (1998). 「The Ethics of School Administr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hurow, L. C. (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Public Interest*, 28, 66–81.
- Treiman, 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 Triventi, M. (2013).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11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3), 489–502.
- Triventi, M. (2013).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stratification in the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2, 45–63.

Trow, M. (2007). Reflections o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to Universal Access: Forms and Phases of Higher Education in Modern Societies since WWII.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243–280.

UNESCO(2014). Tertiary education (ISCED 5 and 6) Gross enrolment ratio.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142&lang=en#>

Weber, M.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and translated by HH Gerth &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신문자료

유종일,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어떨까, 경향신문, 2012. 1.

2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000&artid=201201241942395

이종규, “한달 사교육비 50만원이상 투자” 강남 19명 지방 1명, 한겨레신문, 2006. 12. 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79610.html>

고란, "미국서도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중앙일보, 2015. 6. 3.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46252&ctg=

원선우, "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끝나 " ... 서울대 출신 2030 전문직의 슬픈 노래, 조선일보, 2013. 1. 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3&M=01&D=05&ID=2013010500062

부록 1. 대학서열

대학명	서열	대학명	서열	대학명	서열	대학명	서열
포항공대	1	부경대	51	동의대	101	평택대	151
서울대	2	가톨릭대	52	한남대	102	진주산업대	152
의학계열	3	장로회신학대	53	한세대	103	관동대	153
연세대	4	명지대	54	동명정보대	104	동양대	154
고려대	5	을지의과대	55	청주대	105	호남대	155
서강대	6	인천대	56	한신대	106	여수대	156
서울교대	7	충남대	57	감리교신학대	107	경산대	157
이화여대	8	경기대(수)	58	부산외국어대	108	영산대	158
한양대	9	서울산업대	59	서울신학대	109	경주대	159
성균관대	10	한국외국어대(용)	60	성공회대	110	침례신학대	160
서울시립대	11	경원대	61	안동대	111	대불대	161
홍익대	12	한국해양대	62	대구대	112	한국성서대	162
아주대	13	전북대	63	동서대	113	나사렛대	163
한국외국어대	14	한국기술교대	64	신라대	114	우석대	164
중앙대	15	한성대	65	순천대	115	우송대	165
한동대	16	서경대	66	순천향대	116	극동대	166
경희대	17	동아대	67	성결대	117	탐라대	167
대구교대	18	영남대	68	경남대	118	경동대	168
부산교대	19	충북대	69	강릉대	119	광주여대	169
부산대	20	충신대	70	호서대	120	동신대	170
인천교대	21	중앙대(안)	71	제주대	121	삼척대	171
숙명여대	22	창원대	72	대구가톨릭대	122	중부대	172
한국교원대	23	인천가톨릭대	73	동국대(경)	123	서남대	173
건국대	24	강원대	74	한라대	124	청운대	174
공주교대	25	부산가톨릭대	75	환경대	125	동해대	175
동국대	26	고려대(서)	76	대전대	126	영동대	176
한국항공대	27	수원대	77	목포대	127	광주대	177
진주교대	28	금오공대	78	협성대	128	밀양대	178
경북대	29	홍익대(조)	79	원광대	129	상주대	179
제주교대	30	단국대(천)	80	배재대	130	영남신학대	180
국민대	31	인제대	81	고신대	131	경운대	181
전주교대	32	울산대	82	선문대	132	호남신학대	182
숭실대	33	한국산업기술대	83	충주대	133	가야대	183
포천중문의과대	34	삼육대	84	아세아연합신학대	134	한일장신대	184
인하대	35	공주대	85	서원대	135	호원대	185
춘천교대	36	계명대	86	남서울대	136	대신대	186
경희대(수)	37	강남대	87	서울장신대	137	광신대	187
세종대	38	한밭대	88	목원대	138		
단국대	39	용인대	89	칼빈대	139		
성신여대	40	경상대	90	군산대	140		
청주교대	41	안양대	91	세명대	141		
광주교대	42	꽃동네현도복지대	92	상지대	142		
광운대	43	경성대	93	경일대	143		
서울여대	44	상명대(천)	94	남부대	144		
한양대(안)	45	한림대	95	천안대	145		
상명대	46	조선대	96	건양대	146		
동덕여대	47	건국대(충)	97	위덕대	147		
연세대(원)	48	수원가톨릭대	98	전주대	148		
덕성여대	49	대전대	99	그리스도신학대	149		
전남대	50	목포해양대	100	한서대	150		

부록 2. 1994-2003 대학서열 및 대학서열변수 상관관계

		대학서열변수	03년 백분위 서열	02년 백분위 서열	01년 백분위 서열	00년 백분위 서열	99년 백분위 서열	98년 백분위 서열	97년 백분위 서열	96년 백분위 서열	95년 백분위 서열	94년 백분위 서열
대학서열변수	Pearson r		-.971***	-.966***	-.985***	-.985***	-.983***	-.983***	-.978***	-.969***	-.963***	-.944***
	N		155	166	170	164	154	167	171	149	128	149
03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59***	.971***	.961***	.958***	.956***	.938***	.937***	.915***	.898***
	N			149	147	144	139	143	144	131	117	133
02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65***	.959***	.948***	.939***	.932***	.927***	.916***	.878***
	N				159	151	143	152	153	138	123	135
01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83***	.975***	.967***	.953***	.938***	.934***	.896***
	N					155	146	154	155	137	122	136
00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83***	.970***	.957***	.936***	.929***	.890***
	N						145	152	153	138	122	137
99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78***	.952***	.949***	.934***	.914***
	N							148	144	133	118	134
98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65***	.959***	.950***	.922***
	N								156	142	123	141
97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64***	.951***	.932***
	N									146	126	145
96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58***	.935***
	N										121	137
95년 백분위 서열	Pearson r											.932***
	N											117

부록 3. 직업위세점수(SIOPS-08)·한국고용직업분류코드 매칭

코드	점수	직업	코드	점수	직업
111	65.38	고위공무원및공공단체임원	314	58.45	보험계리인
112	64.51	기업고위임원	315	48.97	손해사정인
120	48.87	사업, 금융 및 사무관련 관리직	319	58.45	기타회계및금융·보험관련전문직
121	56.60	경영지원관리자	321	39.97	금융사무원(보험사무원제외)
122	73.51	금융및보험관련관리자	322	37.83	보험사무원
123	53.28	정부행정 관리자	323	40.28	출납창구사무원
129	48.87	기타사업서비스관련관리자	324	27.00	신용관련추심원
131	72.00	교육관련관리자	331	46.00	보험대리인및보험중개인
132	52.36	자연과학및사회과학연구관리자	332	46.00	보험모집인
133	75.00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관리자	411	78.16	대학교수(전임강사이상)
134	73.51	보건의료관련관리자	412	78.16	대학강사(시간강사)
135	73.51	사회복지관련관리자	413	63.18	장학관,연구관및관련전문가
141	60.67	건설및광업관련관리자	420	63.15	자연, 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142	61.15	생산관련관리자	421	63.15	자연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제외)
143	61.15	정보통신관련관리자	422	62.66	생명과학관련연구원
151	57.21	운수관련관리자	430	56.30	이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2	44.83	판매관련관리자	431	56.30	인문과학연구원
153	53.28	환경·경비·청소관련관리자	432	56.30	사회과학연구원
154	44.83	미용·여행·오락·스포츠관련관리자	441	49.72	자연과학관련시험원
155	44.83	숙박관련 관리자	442	48.11	생명과학관련시험원
156	39.91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450	63.18	학교교사
160	75.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관리자	451	62.63	중등학교교사
211	55.80	인사및노사관련전문가 (공인노무사포함)	452	57.00	초등학교교사
212	55.80	경영지도·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453	49.00	유치원교사
213	58.45	회계사	454	62.00	특수학교교사
214	58.45	세무사	455	78.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15	50.09	광고및홍보전문가	460	58.79	학원강사
216	62.42	마케팅및여론조사전문가	461	49.00	기술·기능계강사
217	47.61	행사기획자	462	62.28	문리·어학계강사
219	48.81	기타경영회계관련전문가	463	62.28	컴퓨터강사
220	44.09	경영관련 사무직	464	62.15	예능계강사
221	37.00	마케팅사무원	465	68.00	학습지방문교사
222	34.44	인사노무사무원	511	73.14	판·검사
223	30.28	구매및자재사무원	512	73.10	변호사
224	44.00	생산관리및품질관리원	513	69.40	변리사
225	32.49	운송및선적사무원	514	54.17	법무사
226	47.61	무역사무원(관세사무원포함)	520	54.17	법률관련사무원
227	49.45	정부행정사무원	531	47.77	경찰관
228	41.73	총무사무원	532	35.00	소방관
230	37.98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533	39.00	교도관및보호관
231	39.97	회계사무원	611	69.03	의사
232	34.00	경리사무원	612	69.03	한의사
240	39.98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613	70.00	치과의사
241	38.19	안내·접수·전화교환원	620	61.00	수의사
242	37.83	고객상담원	630	64.00	약사및한약사
243	40.96	실문조사원	640	48.02	간호사(조산사포함)
251	49.33	비서	651	57.29	물리치료사
252	38.54	사무보조원	652	62.73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311	58.45	투자및신용분석가	659	60.40	기타의료관련치료사
312	53.73	금융자산운용가	660	55.90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313	56.00	증권전문가및투자중개인	661	54.58	임상병리사

코드	점수	직업	코드	점수	직업
662	58.00	방사선사	879	54.59	기타영화,연극및방송관련기술직
663	50.27	치과위생사	881	54.59	연예인매니저
664	60.00	치과기공사	889	35.43	기타문화및예술관련직
671	57.00	안경사	911	59.00	선장,항해사및기관사
672	49.89	안마사	912	66.00	항공기조종사
673	49.87	위생사	913	59.00	관계사
674	52.00	영양사	913	59.00	관계사
675	49.87	의무기록사	920	34.28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676	49.87	구급요원(응급구조사)	921	39.41	철도및지하철기관사
677	50.27	간호조무사	922	29.09	신호원및수송원
678	29.00	간병인	930	31.89	자동차운전 관련직
679	31.58	기타의료관련서비스직	931	30.76	택시운전원
710	51.66	사회복지 전문직	932	31.89	버스및승합차운전원
711	53.89	사회복지사	933	33.00	소형트럭운전원
712	53.89	상담전문가	934	33.00	대형트럭및특수차운전원
713	50.75	직업상담사및취업알선원	939	30.76	기타자동차운전원
714	49.00	사회단체활동가	941	31.60	크레인/호이스트운전원
721	23.00	보육교사및보육사	942	31.89	지게차운전원
731	54.00	성직자	950	25.54	운송관련 단순직
732	22.90	민속종교종사자(점술가, 무당 등)	951	28.69	선박갑판원
739	39.00	기타종교관련종사자	952	20.30	하역관련노무자
811	56.92	작가	953	30.05	우편물집배원
812	65.66	번역가	959	23.13	기타배달및수하물운반원
813	65.66	통역가	1011	50.09	기술영업원
814	56.92	출판물기획전문가	1012	47.00	자동차영업원
815	38.54	출판및자료편집사무원	1013	48.86	해외영업원
821	54.00	학예사및문화재보존원	1014	24.09	일반영업원
722	49.00	생활지도원및생활지도보조원	1015	55.00	상품중개인
822	54.00	사서및기록물관리사	1020	49.00	부동산중개인
830	62.99	기자	1031	36.95	상점판매및관리인
841	57.00	화가및조각가	1032	36.95	상점판매원
842	46.09	지휘,작곡및연주가	1033	26.00	전화통신판매원
843	46.09	가수	1034	24.09	상품대여원
844	40.00	무용가및안무가	1041	24.00	방문판매원
845	45.69	사진가및사진기자	1042	29.25	노점및이동판매원
846	46.09	국악및전통예능인	1043	20.76	매장정리원
847	57.00	만화가및애니메이터	1044	25.00	주유원
850	57.63	디자인 관련직	1045	36.95	계산원및대표원
851	63.19	제품디자이너	1051	34.99	모델및홍보도우미
852	63.19	패션디자이너	1052	18.83	홍보관측원
853	38.00	인테리어디자이너	1111	27.89	청원경찰
854	63.19	시각디자이너	1112	27.89	무인경비원
855	63.19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1113	35.11	경비및건물관리인
856	55.00	제도사	1114	30.28	창고관리원
861	66.78	감독및연출자	1119	28.37	기타경비,경호,건물관리관련직
862	40.44	연기자	1121	22.03	청소원
863	50.00	아나운서및리포터	1122	22.00	파출부및가사보조원
864	51.00	멀티미디어기획자	1123	12.00	구두미화원
870	51.76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기술직	1131	24.00	수금원
871	66.78	영화,연극및방송기술감독	1132	24.00	주차관리원
872	44.87	촬영기사	1133	21.00	계기검침원
873	44.87	음향및녹음기사	1139	26.30	기타서비스관련직
874	44.87	영상,녹화및편집기사	1211	32.00	이용사
875	54.59	조명기사	1212	32.00	미용사

코드	점수	직업	코드	점수	직업
1213	32.00	피부미용및체형관리사	1462	31.00	방수원
1214	32.00	메이크업아티스트및분장사	1463	34.01	배관원
1215	22.90	애완동물미용사	1464	28.00	단열원
1219	32.00	기타이·미용관련서비스직	1465	32.27	바닥재시공원
1220	36.93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466	26.00	유리부착원
1221	53.89	결혼상담원	1467	26.00	도배원
1222	22.90	혼례종사원	1468	30.48	건물도장원
1223	34.00	장의사	1469	38.47	기타건축완성관련직
1231	50.09	여행상품개발원	1470	32.45	건설기계운전원
1232	43.00	여행관련사무원	1481	35.13	광원,채석원및석재가공원
1233	31.07	여행안내원	1482	39.22	점화,발파및화약관리원
1234	50.00	항공기객실승무원	1483	27.60	철도선로설치및보수원
1235	31.07	선박·열차승무원	1489	39.22	기타토목공사및채굴관련직
1236	37.83	숙박시설접수사무원	1490	20.76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자
1237	37.03	숙박시설서비스원	1510	52.33	기계공학기술자
1240	20.03	세탁및드라이클리닝원	1520	37.00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250	30.72	오락,게임및여가관련종사원	1521	42.17	공업기계설치및정비원
1261	50.00	경기감독및코치	1522	38.00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설치및정비원
1262	48.62	운동선수	1523	32.27	냉동·냉장·공조기설치및정비원
1263	50.00	경기심판	1524	42.17	보일러설치및수리원
1264	49.63	레크레이션진행자및스포츠강사	1525	42.17	건설및광업기계정비원
1269	50.11	기타 레저 및 스포츠 관련직	1529	40.26	기타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1310	33.35	주방장 및 조리사	1531	42.17	철도기관차및전동차정비원
1311	34.49	한식주방장및조리사	1532	49.89	항공기정비원
1312	34.49	중식주방장및조리사	1533	42.17	선박정비원
1313	34.49	양식주방장및조리사	1539	40.26	기타운송장비정비원
1314	34.49	일식주방장및조리사	1540	44.00	자동차정비원
1319	30.33	기타주방장및조리사	1550	39.05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320	23.00	조주사	1551	39.96	금형원
1330	22.27	식당 서비스 관련직	1552	39.34	공구제조원
1331	21.67	접객원	1553	37.84	공작기계조작원
1332	22.00	주방보조원	1560	25.00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1333	23.13	요리배달원	1570	34.91	자동조립라인및산업용로봇조작원
1400	39.78	건설 관련직	1581	39.34	자동차조립및검사원
1410	61.49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582	39.34	운송장비조립및검사원
1411	63.19	건축공학기술자	1583	39.34	기계조립및검사원
1412	70.00	토목공학기술자	1610	56.72	재료공학기술자
1413	63.19	조경기술자	1620	36.06	관금 관련직
1414	63.19	도시계획가	1621	37.08	관금원
1415	58.00	지적및측량기술자	1622	40.07	세관원
1416	49.72	건설자재시험원	1623	26.00	샷시원
1417	63.15	건설견적원	1630	38.28	단조원
1420	36.76	전통건축원	1640	39.29	주조원
1431	29.83	철근원	1650	40.07	용접원
1432	44.00	철골공	1661	28.00	제조관련도장기조작원
1433	44.00	경량철골공	1662	28.00	도금,금속분무및관련조작원
1434	34.00	콘크리트공	1670	39.58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441	38.00	석공	1671	38.02	금속가공관련제어장치조작원
1442	34.00	조적원	1672	41.13	금속가공관련조작원
1450	36.76	목공	1673	41.13	금속가공관련검사원
1460	31.57	건축완성 관련직	1681	32.77	비금속광물제조관련제어장치조작원
1461	31.00	미장원	1682	25.00	유리제조및가공관련조작원

코드	점수	직업	코드	점수	직업
1683	25.00	점토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12	65.00	통신공학기술자
1684	30.00	시멘트/석회및콘크리트제조관련조직원	2020	51.2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685	32.00	석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21	51.00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1689	25.00	기타비금속제품가공및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22	51.00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1710	56.00	화학공학기술자	2023	51.00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1721	37.28	석유,가스및화학물제조관련제어장치조직원	2024	51.00	데이터베이스관리자
1722	33.23	화학물제조관련조직원	2025	51.00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및개발자
1723	31.55	화학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26	51.00	컴퓨터보안전문가
1724	30.00	고무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27	51.00	웹개발자
1725	29.30	플라스틱제품관련조직원	2028	53.00	시스템운영·관리자
1726	39.34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2029	51.00	IT컨설턴트
1727	31.55	화학물질화학제품관련검사원	2030	37.47	방송,통신장비설치및수리원
1729	31.55	기타화학제품제조관련조직원	2031	35.00	방송장비설치및수리원
1810	56.00	섬유공학기술자	2032	35.00	통신설비설치및수리원
1820	32.64	섬유제조원	2033	44.87	통신장비기사
1831	30.20	직조기및편직기조직원	2034	35.00	통신케이블설치및수리원
1832	23.32	표백/염색및마무리관련조직원	2110	50.50	식품공학기술자
1833	32.64	섬유관련등급원및검사원	2120	33.47	식품가공 관련직
1834	27.37	제화원	2121	33.00	제빵·제과원
1835	27.86	신발제조및관련기계조직원	2122	33.00	떡제조원
1839	30.54	기타모피및가죽관련종사원	2123	30.04	육·어류가공및낙농제품제조관련조직원
1840	34.6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2124	36.28	제분및도정관련조직원
1841	26.00	재봉기조직원	2125	36.28	곡물가공품제조원
1842	41.00	재단기조직원	2126	36.28	과실·채소및설탕가공관련조직원
1843	38.57	한복사	2127	36.28	음료제조관련조직원
1844	38.57	양장/양복사	2128	30.11	식품가공검사원
1845	38.57	의복수선원	2129	33.46	기타식품가공관련직
1846	41.00	패턴사	2211	48.30	환경공학기술자
1847	32.37	의복제품검사원	2212	65.80	환경및보건위생검사원
1849	33.50	기타섬유가공제조원	2221	46.00	비파괴검사원
1910	51.66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2222	48.00	산업안전및위험관리원
1911	51.66	전자공학기술자(1)	2229	55.50	그외기타공학관련종사자
1912	51.66	전기공학기술자(2)	2231	34.91	상하수처리관련조직원
1920	41.17	전공	2232	34.91	소각로관련장치조직원
1921	44.01	내선전공	2241	41.08	인쇄기조직원
1922	41.17	외선전공	2242	36.00	사진인화및현상관련조직원
1930	37.00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2251	29.95	목재가공관련조직원
1931	35.00	컴퓨터·사무기기설치및수리원	2252	28.00	펄프·종이제조및마무리관련조직원
1932	44.15	가전제품수리원	2253	28.00	종이제품제조관련조직원
1939	37.00	기타전기·전자장비설치및수리원	2254	38.51	목재, 펄프, 종이 가공관련등급원및검사원
1940	34.76	발전장치조직원	2261	39.34	가구조립및검사원
1950	25.00	전기설비조직원	2262	34.69	가구제조·수리원
1960	25.00	전기, 전자부품, 제품 조립 및 검사원	2263	33.00	악기수리원및조율원
1961	25.00	전기제품제조장치조직원	2264	35.06	공예원
1962	25.00	전자제품제조장치조직원	2265	43.00	귀금속및보석세공원
1970	48.00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및검사원	2266	31.00	간판제작원
2010	65.00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269	36.67	기타제조관련직
2011	65.00	컴퓨터공학기술자	2271	20.09	생산관련단순노무자

코드	점수	직업
2272	23.27	포장원
2310	49.00	농림어업관련기술자
2320	37.39	농업, 원예, 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21	43.53	곡식작물재배자
2322	43.53	채소·특용작물재배자
2323	43.53	과수작물재배자
2324	43.53	육묘, 화훼작물재배자
2325	42.02	가축사육자
2326	35.43	동물조련사
2327	43.53	조경사
2328	22.69	조림/영림및벌목원
2329	22.69	기타 임업관련 숙련직
2331	27.24	양식원
2332	27.24	연근해어부및해녀
2333	27.24	원양어부
2340	20.76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자
2410	42.88	군인

Abstract

The Effect of Education o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education after education expansion

Shin, Hangyu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s of education o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This is because educ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ly involved in getting a position and determining income is the primary factor to affect individual stratification. However, the education expansion has recently happened that reflect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leading to generally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its universal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phenomenon would divert from the selective education attainment to the general one and contribute to

mitigation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but it was not realized.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that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s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changes the quantitative education achievement into the qualitative education achievement, tries to find the transition of educational characteristic in Korea, where is on the top of education expansion. Therefore, the researcher tries to ascertain how education influences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by verifying mediation of the subjects' educational achievement to identify what effects the stratification of their parents whose children were 3rd grade in high school in 2004 have on stratification of their children who had finished education and has entered the labor market in 2013, based on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To identify this educational achievement divided into the quantitative one that has represented exist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and the qualitative one that has been discussed recently, this study proposes two questions to see how the quantitativ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he qualitative educational achievement respectively interfere in children's stratification by the influences of their parents' stratification. In establishing research hypotheses concretely, the quantitative educational achievement is measured with the number of years for receiving education, the qualitative one is measured with the type of higher education and the rank of universities, and the social class is measured with their occupation and income. Using these variables, the researcher

established six hypotheses to find effects o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nd analyzed them.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parents' occupation impacts on the number of years for receiving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slightly on the type of higher education among qualitative education achievements, it has influences on their children's occupation, while rank of higher education has no mediation effects.

On the contrary, parents' income has direct effects on the number of years for receiving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the type of higher education but no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income, whereas because parents' income impacts indirectly on their children's income through their rank of higher education, the rank of higher education among qualitative education achievements is identified significant to have the mediation effects. These results mean the quantitative educational difference is important in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while the qualitative educational difference is important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income.

Moreover, additional analysis using the education variable that integrates aspects of quantitative education and qualitative education supports the foregoing results strongly, showing the group of top level university graduates leads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Through the result of study, if education expansion is maintained to the end, it is predicted that inequality of social mobility will continue even if everyone receives higher education. That is to say, if more people are given more

education, the effects of parents' occupation will be eliminated, but will not be able to get rid of those of parents' income on inequality.

This is the same result with EMI hypothesis of Lucas(2001) that inequality in parent generation is connected to the next generation in some way or other so that defensive investment is indispensable to maintain status and inequality among different status groups persists, as the job competition theory of Thurow(1972) insisted, which prove that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ial economic, cultural investment power among status groups can persist in the status competition theory of Collins(1979).

For social integration and both efficiency and benefits of the whole society, we try to eliminate the chain of inequality that parents' stratification have influences on their children via their education achievement, and in the field of the welfare policy inequality of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should be corrected through strengthening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creasing minimum wages, improving the structure of redistribution, and etc.

Keywords : Social mobility, Education expansion, Occupational mobility, Income mobility, Quantitative education achievement, Qualitative education achievement, Medi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13–20119